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필리핀계 결혼이주여성의 내러티브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心理治療學科

金 來 星

2019年 6月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필리핀계 결혼이주여성의 내러티브

指導教授 金 民 浩  
金 來 星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年 6月

김래성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서민경   
위 원 송재홍   
위 원 김민호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19年 6月

# A Narrative of Filipino a Marriage Immigrant Woman with a Congenital Disabilities Child

Lae Su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Min H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 [Master of Psychotherapy]

2019.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Min Ho Kim*

.....  
Thesis director, Min Ho Kim, Prof. of Psychotherapy

.....  
*김민호*  
.....

(Name and signature)

*June, 2019*

.....  
Date

Department of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국문초록 .....	iv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문제 .....	3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	4
<b>II. 이론적 배경</b> .....	5
1. 결혼이주여성 .....	5
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	9
3. 장애자녀의 양육 .....	12
4. 결혼이주여성의 장애자녀 양육 .....	16
<b>III. 연구방법</b> .....	20
1. 연구자의 자전적 이야기 .....	20
2. 내러티브의 개념 및 절차 .....	21
1) 내러티브 연구의 개념 .....	21
2) 연구절차 .....	22
3. 연구 참여자 .....	25
4. 자료 수집 및 분석 .....	27
1) 자료 수집 .....	27
2) 자료 분석 .....	30
5.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적 고려 .....	32
1) 연구의 신뢰성 .....	32
2) 연구자의 준비 .....	32

3) 윤리적 고려 .....	33
<b>IV. 연구 결과 및 해석 .....</b>	<b>35</b>
1. 연구 참여자의 삶의 맥락 .....	35
1)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 .....	35
2) 가족관계 .....	36
3) 한국의 장애아동 복지정책 .....	38
2.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 .....	39
1)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	39
2) 장애자녀의 출산과 엄마로 살아가기 .....	41
3)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	45
3.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삶의 의미 .....	46
1) ‘수용’ .....	47
2) ‘선택의 연속’ .....	49
3) ‘당당하게 살아가기’ .....	51
<b>V. 논의 및 결론 .....</b>	<b>58</b>
1. 논의 .....	58
1) 개인적 정당성 .....	58
2) 실제적 정당성 .....	59
3) 사회적 정당성 .....	60
2. 결론 .....	62
참고문헌 .....	66
부록 .....	75
ABSTRACT .....	76

<표 목차>

<표 II-1>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 .....	6
<표 II-2>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	6
<표 II-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 .....	8
<표 II-4>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시기 .....	15
<표 II-5>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	15
<표 II-6> 다문화가족의 등록 장애인 현황 .....	17
<표 III-1> 연구절차 .....	24
<표 III-2> 연구 참여자 배경정보 .....	26
<표 III-3> 심층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 내용 .....	29
<표 III-4> 연구자의 연구일기의 예 .....	30
<표 IV-1>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삶의 의미 .....	47

<그림 목차>

[그림 II-1] 초중등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	10
---------------------------------	----

국문초록

#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필리핀계 결혼이주여성의 내러티브

김 래 성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지도교수 김 민 호

이 연구의 목적은 선천성 지체장애 자녀를 둔 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깊이 있게 접근하여, 어떤 맥락에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동안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연구방법은 개인이 살아온 경험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심층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출신국이 필리핀으로 2009년 국제결혼 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이었으며, 주된 자료수집방법은 심층면담, 문자, 전화, 연구일기 등이었다. 자료 분석은 현장텍스트를 반복하여 읽고 들으며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내러티브적으로 코딩하였고 주제를 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참여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연구 참여자의 자녀출산 및 양육경험을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이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



았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도출된 경험의 의미는 ‘수용’, ‘선택의 연속’, ‘당당하게 살아가기’ 이다.

첫째,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삶의 의미는 ‘수용’이다. 연구 참여자는 보편화된 국제결혼의 맥락에서 가족을 돕기 위해, 아픈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서 두렵지만 담담히 결혼을 받아들였다. 또한, 한국문화에 적응도 되기 전에 지체장애자녀의 출산이라는 엄청난 현실에 직면하면서도 자녀의 장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둘째, ‘선택의 연속’이다. 첫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둘째는 갖지 않으려고 하였다. 지체장애자녀의 어린이집 선택, 초등학교 입학과정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셋째, ‘당당하게 살아가기’이다. 연구 참여자는 남편의 무관심이나 말없음, 양육에 도움이 안 됨을 호소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여건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관계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과 적응의 어려움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비록 몸은 한국에 있지만, 통신망을 이용해 원가족인 친정식구들과 일상을 교류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특히, 장애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식구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신체적·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개인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 세 가지 정당성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참여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애아를 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과 상담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 주요어: 결혼이주여성, 지체장애자녀, 내러티브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확대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한 나라의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다문화사회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11월 1일 발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는 모두 186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5,142만 명) 대비 3.6%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중 결혼이민자, 귀화자수는 304,516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건수보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건수가 월등히 많다. 성별구성비를 보면 여성이 83.1%, 남성이 16.9%를 차지하여(2019년 1월 법무부 출입국 통계월보)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서,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정<sup>1)</sup>의 자녀세대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주민 자녀는 222,455명으로, 2016년 201,333명에 비해 10.5%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은 언어와 문화로 인한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이 제시되고 있다(채옥희, 홍달아기, 송복희, 2011; 남기민, 하미용, 2012).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강선경, 김현진, 2011). 다

1) 다문화 가정은 결혼이민자 및 관련법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다문화가족 지원법, 2008), 넓은 의미로는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이 이에 속한다(김미애, 2018).

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의 73.5%는 자녀를 교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강희구, 2010). 이러한 현실에서 다문화 여성의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양적연구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연구로는 그들의 심층적인 내부자적 입장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아동의 존재는 자녀양육에 책임을 느끼는 어머니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과 함께 가족의 일상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장애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장애유형별(김종민, 2012; 이명희, 김안나, 2012)로 찾아 볼 수 있다.

장애인 문제는 가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현실은 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정확한 현황과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은 장애자녀 양육의 문제에 더불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를 동시에 갖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들은 사회적 적응이나 학교교육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점과 ‘자녀의 장애’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기홍, 2012). 다문화가정의 장애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로는 윤란(2011), 염지숙(2012), 박지숙(2015), 하미용(2015)의 연구가 있다. 그런데, 윤란(2011)의 연구는 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을 가장 먼저 연구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3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30분씩 3회의 면담과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충분히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염지숙(2012)의 연구는 발달장애아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 1명을 대상으로 생애사적 연구를 수행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드러냈다는 의의가 있으나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서 공교육에 진입하는 과정의 경험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박지숙(2015)의 연구는 청각장애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험을 드러냈는데 의의가 있으나 역시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했기에 학령기의 경험을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미용(2015)의 연구는 각 연구 참여자의 한국어 사용정도, 자녀의 장애유형 및 등급이 달라서 구체적인 장애에 따른 심층적인 경험을 볼 수 없어 아쉽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에 따라 연구자는 초등학교 입학을 경험한 선천성 지체장애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을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에 대한 연구방법은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 역사가 길지 않기에 조사연구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연구로는 장애아동 어머니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그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연구방법은 개인이 살아온 경험, 이야기된 경험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지체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한 심층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선천성 지체장애 자녀를 둔 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깊이 있게 접근하여, 어떤 맥락에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동안 무엇을 경험하였으며,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둘째,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통해 지체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심층면담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연구 참여자의 결혼 전 삶의 이야기, 국제결혼, 지체장애자녀의 임신, 출산과정을 살펴보고, 지체장애자녀의 양육이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범위에 따른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는 장애등록을 한 지체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장애자녀의 주 양육은 대부분 여성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체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국적의 아버지나 외국인 부부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둘째, 연구 참여자가 양육하는 지체장애 자녀는 초등학생으로 제한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지체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발달단계상 지체장애 자녀의 청소년기, 성인기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추후과제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결혼이주여성

#### 1) 결혼이주여성의 개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 ‘여성결혼이민자’ 등 다양하게 지칭된다. 다양한 지칭에 대한 정의는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한동, 2008),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국제 결혼한 여성(장진숙, 2010) 등으로 정의되며 인권적·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김민정, 유명기, 이해경, 정기선(2006)도 국제결혼에 대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 배우자가 여성이나 남성이나에 따라 성격이 많이 차이가 나므로 성별을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하였다. 외국인 여성은 결혼을 선택할 때 이주가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결혼을 통한 이주가 곧바로 국적취득과 같은 이민의 성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용어가 유용하다(구은정, 2010).

법무부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격으로 F-6(2011. 12. 15. 신설)의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자격조건은 “양 당사자 국가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 2) 결혼이주여성의 특성

우리나라는 특히 이주의 여성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유입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90년대 초반에는 농촌 미혼 남성이, 90년대 후반에는 도시 재혼자의 배우자, 지방에는 통일교를 통한 결혼이주(이혜경, 2005)가 주로 이루어졌다. 법무부(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월호에 결혼이주여성의 증감추이를 보면 2002년 이후 매년 28%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민자는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진화를 위한 결혼이민사증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조치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은 0.96%이다. 2019년에는 159,745명으로 전년대비 2.5%가 증가하였다. 성별로 여성이 132,748명으로 전체의 83.1%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은 26,997명으로 16.9%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6.8%로 가장 많고,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4%순이다.

<표 II-1> 결혼이민자 연도별 증감 추이

(2019.1.31. 현재, 단위: 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8년1월	'19년1월
인 원	150,994	151,608	152,374	155,457	157,418	155,876	159,745
전 년 대 비 증 감 률	-	0.4%	0.5%	2.0%	1.3%	-	2.5%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표 II-2> 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2019.1.31. 현재, 단위: 명)

국적 구분	계	중국(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기타
전체	159,745 (100%)	58,854(21,992) (36.8%)	42,620 (26.7%)	13,769 (8.6%)	11,859 (7.4%)	4,495 (2.8%)	4,461 (2.8%)	2,447 (1.5%)	21,240 (13.3%)
남자	26,997 (16.9%)	12,788(7,578)	2,238	1,230	423	230	96	147	9845
여자	132,748 (83.1%)	46,066(14,414)	40,382	12,539	11,436	4,265	4,365	2,300	11,395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통계청(2018)에서 발표한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혼인은 26만 4천 건으로 전년보다 6.1% 감소한 반면, 다문화 혼인은 21,917건으로 전년(21,709건)보다 208건(1.0%)이 증가하였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전년보다 0.6% 증가한 수치이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연령을 보면 45세 이상의 비중이 26.4%로 가장 많고, 30대 후반(19.5%), 30대 초반(19.4%) 순이다. 다문화 혼인을 한 아내의 연령은 30대 후반이 27.7%로 가장 많고, 30대 초반(21.9%), 20대 초반(18.0%) 순으로 많다. 다문화부부의 연령차는 10세 이상 남편 연상이 39.5%로 가장 많았다.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와 성비 불균형 등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과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으로 인한 결혼 가치관의 변화 등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출산율의 변화와 인구 이동에 따른 혼인 적령기 남녀 인구간의 불균형 등의 인구학적 요인이 지속되면 배우자 선택 과정에서 과부족 현상이 나타나 초혼연령을 상승시키고, 미혼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므로써 국제결혼이 증가하게 된다(김두섭, 2006). 이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결혼연기나 지연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결혼압박이 국제결혼의 증가를 가져온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한국정부의 주요 정책 배경이 되어 노동력을 수입하고, 국제결혼을 장려하거나 혹은 제한하는 사회제도적 배경이 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서, 종교적인 이유, 무허가 브로커 등으로 다양하다(박신규, 2010). 결혼중개업소를 통하는 경우 보통 처음 만남에서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3일~7일이 걸리며, 빠르면 1회의 만남으로 결혼에 이르기도 한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여성이주가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박영일, 2009)에 대한 연구, 가정적 어려움(김오남, 2006; 류순희, 2010; 박영일, 2009; 서옥희, 2010; 이명자, 2010; 조윤오, 2010), 사회·문화적 어려움(오성배, 2005; 이수진, 2010)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전반적으로 결혼이주 여성이 겪게 되는 문제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적응,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빈곤, 외모로 인한 편견, 부정적 사회인식, 부부 갈등, 자



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가 있다(임선모, 2012).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sup>2)</sup>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문제가 34%로 가장 높고 외로움이 33.6%, 경제적 어려움 33.3%, 자녀양육 및 교육 23.2%, 문화적 차이 22.2% 순이었다. 2012년 조사에 비해 편견과 차별을 느끼는 것, 문화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언어 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외로움, 가족갈등, 자녀양육, 은행과 법원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표 II-3>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생활 어려움(복수응답)

(단위: %)

구분	없음	외로움	가족 간의 갈등	자녀 양육 및 교육	은행, 법원 등 이용	경제적 어려움	언어 문제	문화 차이	편견과 차별	기타
2012년	15.8	31.4	10	22	8.1	36.1	36.1	26.4	20.7	15.8
2015년	15.1	33.6	11.2	23.2	9.4	33.3	34	22.2	16.1	0.6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도 전에 임신과 관련해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한국생활에 대한 적응과 출산 및 양육이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다(송선화, 안효자, 2011). 정금희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이 결혼 후 첫 임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6.6개월로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다.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있어 의료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한다(장갑수, 2013). 새로운 문화의 적응과 자녀출산, 양육이 맞물려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육아의 고충에 대한 외로움, 불안 등을 갖게 된다(박은민, 김성수, 박순희, 2011). 그리고 빠른 임신은 한국어 공부를 할 기회를 적게 만들어 그로 인해 한국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더욱 겪게 된다(송복희, 2012).

최근 일본, 대만, 한국을 정착지로 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 이주에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게 되어 있다. 이에 2009년도부터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에 2차, 2015년에 3차, 2018년에 4차를 실시하였다.

대한 선행연구들은 결혼이주가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특이한 유형의 이주 형태로 서 주목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시민권과 초국가적 측면을 논의한 연구들에 이어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질적 분석으로 접근한 연구가 있다. 박신규(2010)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주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삶의 전략에 따라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이주 적응과 정착기를 통하여 이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는 민족 정체성이었다. 귀화라는 과정을 거쳐 한국에서 안정적인 정주민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친정가족의 연쇄이주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선형(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어떻게 어머니가 되어 가는가를 살펴보고 결혼이주여성의 돌봄 네트워크가 초국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윤경(2016)은 결혼이주여성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존재로 보고,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의 며느리, 아내, 딸로서의 삶, 엄마로서의 삶, 존재적 자아로서의 삶을 탐색하였다.

## 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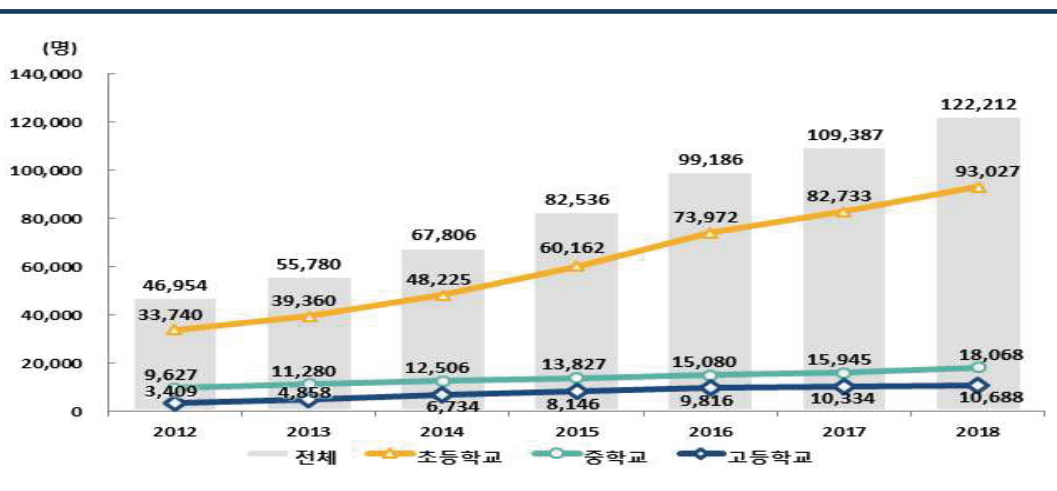
### 1)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현황

교육부(2018)의 ‘2018년 교육 기본 통계3)’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 초·중등학교(각종학교 포함)의 다문화 학생 수4)는 전체 학생의 2.2%인 122,212명이다. 이는 전년(109,387명) 대비 12,825명(11.7%)이 늘어난 수치다. 2012년 46,954명에서, 6년 만에 무려 2.6배 늘어난 것이며, 특히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93,027명으로 전년(82,733명) 대비 10,294명(12.4%)이 증가하였다. 학교 급별 다문

3) 교육기본통계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 기관,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8월에 발표함

4)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가정자녀 + 외국인가정 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 :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외국인가정 자녀 :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화학생 비율은 초등학교가 3.4%, 중학교가 1.4%, 고등학교는 0.7%로, 초등생 100명 중 3명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라는 의미이다. 학령인구의 구체적인 추이를 보면, 전체 학령인구는 연평균 18만 명 이상씩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학생은 매년 1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8). 유형별로는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8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의 출신 국적별 다문화 학생 비율(수)은 베트남 29.1%(35,568명), 중국(한국계 제외) 22.3%(27,200명), 필리핀 11.5%(14,093명), 중국(한국계) 10.2%(12,522명), 일본 8.5%(10,363명) 순 이었다.



[그림 II-1] 초·중·등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출처: 교육부(2018), 2018 교육부 기본통계

## 2)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경험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로서 자녀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이다(배지희, 봉진영, 2012; 양시내, 김우영, 2013; 오옥선, 김성봉, 2012; 한경님, 2012). 둘째, 다문화 가족의 자녀교육과 관련한 연구로서 자녀들의 언어 및 정서발달 수준, 자아정체감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에 해당한다(이재분, 강순원, 김혜원, 2008; 전홍주, 배소영, 곽금주, 2008).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 소통과 교육관련 정

보습득에서의 취약함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과 실질적인 개입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가족 관계나 생활 형태, 역할의 변화에서 유발됨을 알 수 있었으며, 자녀 양육을 거의 혼자 떠맡게 되었을 때, 자녀 양육의 스트레스를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자녀 양육을 거의 혼자 떠맡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는 더욱 심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한상영, 2011).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적응 유연성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의 직업, 경제수준, 학업 스트레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친구 신뢰감, 교사 신뢰감, 교사 애착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이 사무직이거나, 하위 경제 수준이거나,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아동의 적응 유연성이 낮아졌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양호하고, 친구 신뢰감과 교사 신뢰감이 높거나 교사 애착이 높으면 아동의 적응 유연성은 높아졌고, 친구 신뢰감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 유연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전명자, 2011).

이 외에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이 국적을 인식할수록 학교 적응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 아동의 탄력성이 높은 경우에 학교 적응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김나예, 2012).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일반 가족 자녀들에 비해 어머니 애착이 자아 개념과 우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심리 적응 수준이 낮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머니 애착이 특히 중요하다(남윤주, 2009).

한편, 다문화 여성들은 시부모와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나타내고, 다문화 여성의 자아존중감은 애정적이고 자율적 양육 태도, 자녀의 사회 능력과 정적 상관, 거부 양육 태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김민경, 김정은, 2009), 다문화 여성의 언어소통과 문화 적응 등 생활의 어려움은 자녀의 학교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주로

다문화 여성은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는 친구 등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사회 편견과 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며,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친구관계, 미숙한 한국어, 교과서의 어려움, 낮은 성적순으로 나타났다(김수연, 2011).

### 3. 장애자녀의 양육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이며, 장애아동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아동”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다.

장애아동을 출산한 부모는 기존의 부모역할과 책임감 외에 부가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장애아를 두지 않은 가족들이 겪지 않을 가족의 중요한 역할 변화들이 장애인 가족의 삶에 포함되는 것이다(박지연, 유은연, 2004). 장애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육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 할 수 있다.

장애아동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류경희, 한경임, 이형숙, 2011)에 의하면 대체로 자녀의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스트레스가 높고, 자폐아동의 어머니들이 다른 장애 영역 아동의 어머니들보다 스트레스가 높으며,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보다 지적장애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이형숙, 류경희, 한경임(2007)의 연구에서는 정서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녀 순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양적 조사연구로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장애 아동 양육에 대한 대부분의 양적 연구들은 장애 아동 부모들의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그런데 장애아동 부모의 자녀 양육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질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한경임, 송미승, 박철수(2003)의 연구에서 장애

아동 어머니들은 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짐스러움을 중심현상으로 하여 자신의 아이가 장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창피해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에서 장애아동 양육의 전반적인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 사회적 시선과 경제상태, 교육 수혜 여건이 작용하였다.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질적 연구로 근거이론을 사용한 김소형, 한경임(2013)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중심현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특히 이 연구 통해 밝혀진 ‘여성성 상실’에 관한 개념은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개념이다. 연구 참여자는 자녀가 독립보행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 24시간 아이 옆에서 그림자처럼 있어야 하고, 온몸과 정신을 몽땅 자녀한테 쏟아 붓느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삶이 없어졌다고 한다.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한 정세영, 김자경(2015)의 연구에서는 사춘기에 접어든 장애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자녀의 성장과 변화 속에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도 변해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었으며 이는 양적연구에서 볼 수 없는 질적 연구만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청각장애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질적 연구한 김병하, 강창욱(1992)에 따르면 청각장애는 쉽사리 드러나지 않는 장애이기 때문에 이 장애를 확실히 진단받아 확인하게 되기까지 어머니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상당기간 허송세월하게 된다고 한다. 확인 이후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자문해 주는 전문가들을 접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열망으로 보청기와 조기교육에 희망을 걸며 농학교 입학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고 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부모의 열망으로 청각장애자녀는 장기간에 걸쳐 온갖 고통을 감수하면서 발성연습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되지만 거의 진전이 없는 것을 목격하면서 부모의 열망은 깨어지고 새로운 양상의 갈등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장애자녀의 어머니들은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만을 느끼지는 않는다.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끼지만, 동시에 가족들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가족의 행복

감과 만족감이 더 높아지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수정, 2011).

지체(肢體)장애란 질병 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장애이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sup>5)</sup>에 의한 지체장애인의 포함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장애인실태조사<sup>6)</sup>(2017)에 의하면 인구 1,000명 당 장애인 수인 장애인 출현율은 5.39%(장애인수 총 2,668,411명을 바탕으로 추정된 수치)이다. 전체 장애인 2,668,411명 중 지체장애인은 1,278,368만 명으로 추정되며 15개 장애유형<sup>7)</sup> 중 가장 높은 비율로 48%에 달한다.

지체장애의 발생 시기를 알아보면 거의 대부분 출생 이후에 발생(99.2%)되고 있어 지체장애의 특성 상 후천적 원인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2018년 12월 31일 개정

6)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장애 출현율, 전국 장애인 수,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 마다 실시됐고, 2007년 법 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으로 총 8차례 실시하였다.

7)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표 II-4>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시기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0.8	0.7	0.8
돌 이전	1.6	2.0	1.7
돌 이후	97.6	97.2	97.5

출처: 보건복지부(2018),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지체장애 발생 원인을 선천적, 출생 시 및 후천적 원인(질환이나 사고)으로 구분해서 알아보면, 전체 지체장애인의 49.7%가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고 다음으로는 질환이 48.0%로 나타나 후천적 원인인 사고와 질환이 장애발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천적, 출생 시 원인은 1.8%이다.

<표 II-5> 지체장애의 장애발생 원인

(단위: %)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선천적 원인	1.6	1.5	1.6
출생 시 원인	0.2	0.2	0.2
후천적 원인	질환	67.8	48.0
	사고	29.6	49.7
원인불명	0.4	0.8	0.6

출처: 보건복지부(2018),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지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운동기능장애에 문제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많다. 근육이나 관절을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마비가 장기간 지속되면 대부분 근력이 약해지거나 위축, 경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러한 운동기능장애는 주로 이동이나 손동작의 곤란을 야기하며, 이러한 곤란은 유아기에 탐색활동을 제한시키고 학령기에는 경험부족을 유발시켜 학업부진이나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사춘기를 포함한 청년기에는 자신의 신체나 운동에 대한 열등감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자신의 장애로 인해 위축되어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열등감을 느끼고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 특히 후천적으로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신체능력과 생활방식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의지와 적응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지체장애아동 어머니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지체장애아동을 양육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일반아동 어머니의 양육과 비교해 보면 지체장애아동은 어머니에게 더 의존적이며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여 어머니의 육체적 피로가 더 많다. 이러한 지체장애 아동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는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지만 특히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62%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박은신, 2004). 이는 어머니가 장애아동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정 살림을 돌보면서, 장애 아동 뿐 아니라 비장애형제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를 평생 책임져야한다는 정신적 피로 등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러 장애 유형 중에서 지체장애아동은 운동기능 장애, 지적장애, 시각, 청각, 언어정서장애 등을 수반하여 중복장애로 나타난다. 때문에 지체장애아동의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을 제공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게 된다(윤현주, 2001).

#### 4. 결혼이주여성의 장애자녀 양육

현재 국내의 통계에서 다문화가족의 장애아동만을 구분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학생의 현황과 결혼이민자 자녀의 현황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가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다. 2015년 조사결과, 전체 다문화가족은 약 276,036가구로 추정된다. 그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비율은 6.4%이다. 한편 이 조사의 총 가구원 수 58,573명 중 1,272명이 등록 장애인으로 파악되며 전체 다문화 가구원 중 약 2.2%가 장애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등록 장애인 가구원을 결혼이민

자·귀화자와의 관계 측면에서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의 61.6%가 배우자, 다음으로 배우자의 부모가 14.9%, 결혼이민자·귀화자 본인이 장애인 경우도 10.7%에 달하고, 자녀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는 9.5%를 차지하고 있다. 즉, 약 10%가 다문화가정이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장애자녀의 비율은 다문화가정, 다문화자녀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II-6> 다문화가족의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

구분	장애인 가구 비율	자녀	결혼 이민 자의 배우 자	이민 자 본인	배우 자 부모	손자 녀	조부 모	배우 자의 조부 모	형제 자매	배우 자의 형제 자매	기타
2009	17.3	5.7	41.5	4.8	32.1	-	-	-	-	15.3	10.6
2012	8.6	11.2	60.4	9.7	22.8	0.2	0.2	0.4	2.6	0.4	-
2015	6.4	9.5	61.6	10.7	14.9	-	01.	0.4	-	1.0	0.1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다문화가정에서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서 일반적인 발달을 보이는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과 비교하면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힘든 한국생활에 적응해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삶과 장애자녀 양육이라는 무거운 짐을 견뎌내야 하는 다문화가정 장애자녀 어머니의 삶(주성희, 한경임, 2017)을 살아야 한다.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비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연령, 한국 거주 기간, 국적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어 수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녀의 장애여부보다는 정도에 따라 어려움의 차이를 보였다(이인숙, 2011).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의 양육에 대한 연구는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해 다룬 연구보다 양적으로 현저하게 적다(전혜영, 이미숙, 2014).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인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과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 중 외국인 어머니가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언어적, 심리적, 교육 환경적,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어머니는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언어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의사전달이 어렵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 등 살아가는데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장애자녀를 키우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지숙(2012)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어떠한 요구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홍(2012)은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장애자녀의 교육과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봉귀영과 이소현(2013)은 외국인 어머니들에게 장애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단순한 한글을 읽거나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접하였을 때는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외국인 어머니의 언어적인 문제는 단지 어머니의 개인적인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언어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란, 2011). 신수진(2011), 이은경, 석동일(2010)은 양육자인 외국인 어머니의 언어적 특성은 자녀의 조음음운과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둘째, 외국인 어머니는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가족이나 친척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무시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홍(2012)과 염지숙(2012)은 농촌지역의 경우 전통적인 가부장적 인식을 지닌 장애자녀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외국인 어머니가 가사일과 자녀양육, 때로는 경제적인 책임까지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어머니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사일과 장애자녀 양육 등과 같은 책임 때문에 정서적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염지숙(2012)은 이러한 외국인 어머니들의 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가 많지 않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어머니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 어머니는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 환경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 어머니는 장애자녀의 교육환경이 열악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초기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농촌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들과 외국인 여성이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김기홍, 2012), 농촌 지역의 교육 환경의 열악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염지숙(2012)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의 외국인 어머니는 학교 교육시설, 병원, 치료지원 시설, 그리고 전문 인력과 같이 전문성을 갖춘 환경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어머니는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염지숙(2012)의 연구에서 남편이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의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의 불화, 불안감, 고립감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성희(2013)의 연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경우 대부분 농촌이나 소도시에 거주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외국인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면서 양육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전혜영, 이미숙(2014)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둘째,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편견, 불이익,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셋째, 다문화가정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연계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이들은 상당수 농촌과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다양한 복지자원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장애아동 교육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가족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자의 자전적 이야기

Clandinin과 Connelly(2007)가 제시한 내러티브 분석 방법에 따라 첫 번째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경험에 대해 연구자의 내러티브를 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자신에 대하여 탐구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 경험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의미, 경험이 이루어졌던 다양한 환경 등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을 뜻한다. 내러티브연구에서는 인간의 경험이 내러티브 안에서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되는 사건에 영향을 주는 연구자의 내러티브에 대한 탐구가 필수적이다.

연구자는 학교와 여러 기관에서 강사로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연구자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이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수업 중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만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지난해 내 수업을 받던 1학년 민석, 민준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 민석, 민준이는 3월 학기 초부터 수업시간에 자주 늦었다. 수업하는 교실을 잘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수업내용을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었다. 게다가 수업 끝나기 오 분 전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수업정리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민석, 민준이가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학기 초에 알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수업시간의 일이다. 어느 때처럼 민석, 민준이는 수업에 늦었고 교구를 가지고 하는 활동에서 늦게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교구활동 중 민석이가 “선생님”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잠시만...”이라고 말하고 다른 학생을 잠시 봐주고 가려고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민석이의 말 “왜 선생님 내 말 안 들어줘요?” 라며 억울한 투로 말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당시 민석이의 당찬 말과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순간 당황했다. 너무 당차게 표현하는 민석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아이였나? 그 후 학교에 쌍둥이를 데리러 온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평소와 같았으면 수업을 받는 학생의 어머니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며 인사를 나누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그 때 그냥 눈인사만을

하고 지나쳤다.

수업시간의 경험과 어머니와 마주했던 잠깐의 시간, 두 상황이 겹쳐지면서 알게 되었다. 연구자도 모르는 사이 사회와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이기에 수업에 참여가 느린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뭔가가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 다문화가정의 어머니 역시 소통이 잘 안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 자신에게 느꼈던 불편한 감정은 꽤 오래갔다.

그 후, 질적 연구방법론 강의를 듣고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문헌을 검토하던 중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 중 특히 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한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이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 2. 내러티브의 개념 및 절차

### 1) 내러티브 연구의 개념

질적 연구의 목적은 다수의 연구대상자를 통한 일반화의 도출이 아니라, 특정 연구 참여자의 경험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내고 그 연구 참여자를 실제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데 있다(서원주, 2010). 인간 경험을 탐구하는 데 있어 적절한 연구방법에 대한 고민은 인류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인류학자들의 원주민 문화 기술을 시작으로 하여 연구자가 인간 경험에 관심을 기울이는 다양한 형태의 질적연구 방법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각각의 질적 연구 방법론은 인간 경험에 대한 이론적, 인식론적 접근에서 약간의 차별성을 보이지만, 질적 연구의 목적으로 이야기되는 ‘인간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부분에선 일치하고 있다. 질적 연구 방법론 중의 하나인 ‘내러티브 연구’ 역시 인간 경험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이야기화된 경험을 시간의 흐름과 상황을

바탕으로 탐구하는 연구방법이다.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Clandinin, 2013).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이야기’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화를, ‘내러티브’란 긴 시간에 걸쳐 있는 삶에 대한 사건들을 뜻하는 것으로 구별 짓는다. 내러티브는 연구대상인 동시에 연구방법이며, 내러티브 연구란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러한 경험을 해석하는 방법까지는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염지숙, 2003). 또한 홍영숙(2015)은 경험은 내러티브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러티브를 단순히 연구를 위한 분석 도구로만 바라보아서도 안 되며 내러티브는 인생이며 삶 자체라고 하였다. Polkinghorne(1988)도 내러티브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내러티브로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내러티브의 입장에서 우리 삶을 이해하고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내러티브가 되는 것이다. 삶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그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자는 내러티브 연구가 선천성 지체장애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그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채택하였다.

## 2) 연구절차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과정을 5단계로 제시하였다. 5단계는 현장으로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이다.

### (1) 현장으로 들어가기

이 단계는 연구자가 연구의 동기를 생각하고,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현장을 모색하며, 자료수집에 들어가기 전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연구 참여자와 만나면서 현장에 익숙해지는 단계이다.

## (2)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연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을 하며 현장텍스트를 쓰는 일을 생각하는 단계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가 현장텍스트를 쓸 때 참여자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 하는가 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자는 현장에 완전히 몰입하여 참여자들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연구자는 참여자와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냉담한 관찰자’가 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냉담한 관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자신의 이야기, 참여자의 이야기, 그들 삶의 전경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점에서 Clandinin과 Connelly는 내러티브 탐구자들이 연구자로서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주시하기 위해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의 긴장관계 속에 위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김병극, 2012).

## (3)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는 질적 연구에서 데이터 또는 자료라고 부르는 것을 말한다. 내러티브 연구에서 현장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데이터 또는 자료가 우연히 발견되거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와 연구자에 의해서 ‘생산’되기 때문이다(박세원, 2007).

## (4)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 단계는 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현장 텍스트로부터 연구 텍스트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한다. 내러티브 연구의 인식론적 가정은 인간의 삶의 의미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이야기로 구성함으로써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세원, 2007).

## (5)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내러티브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수집된 자료들을 내러티브하게 코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는 자료의 엄격한 분류나 구분에 의한 코딩이 아닌 자료를 읽고 또 읽음으로서 자료에 담긴 줄거리, 주제 등 내러티브적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야기를 재배치시키는 것이다. 잠정적 텍스트는 해석의 과정을 거쳐 의미를 찾아낸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5단계 연구과정을 참고하여 4단계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연구절차

구분	특징
1단계 연구 주제 선정하기	·연구주제 선정 및 이론적 검토
2단계 현장으로 들어가기	·연구 목적에 적합한 현장을 탐색하기 ·연구 참여자와 첫 만남 가지기 ·연구에 대한 안내와 동의 구하기 ·친밀한 관계 맺기
3단계 자료 수집하기	·면담 : 연구 참여자의 삶과 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정보 수집 ·사진 : 연구 참여자의 경험 제공 ·전화 : 약속 잡기, 근황 등 경험 공유 ·연구일기 :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 심리 등을 작성 ·문자 메시지 내용 :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정보교환
4단계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현장 텍스트를 문서화하기 ·반복하여 읽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기 ·현장텍스트 추가 수집 및 수정 보완 ·주제 범주화 ·잠정적인 텍스트를 구성하여 연구 참여자와 공유 ·선천성 지체장애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의미 해석

### 3.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풍부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대상자를 ‘목적성 있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Patton, 1990). Creswell(2007)은 내러티브 탐구를 위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 연구할 특정 현상이나 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풍부하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적절성’과 ‘충분함’이라는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의도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택하는 전략을 취한다(Maxwell, 2005). 적절성은 연구에서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서 연구에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충분함이란 연구대상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위해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질적 연구가 갖는 타당성, 유의미성, 통찰력은 연구 참여자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연구 참여자가 얼마나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연구자가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Patton, 1990).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 가장 친밀한 관계가 요구되는 것이 내러티브탐구이다. 즉, 일종의 대화로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sup>8)</sup>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구자 주변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찾던 중 지인을 통해 소개받게 되었다. 이 때, 혼인기간과 자녀연령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 표본 추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로, 장애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을 경험한 여성이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을 경험한 여성으로 정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2018년 10월, 연구자는 면담을 시작하기 전 직접 연구 참여자를 만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이 면담의 자료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 참여자와 자녀의

8)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자녀 이름, 기관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연구자의 질문은 [ ] 로, 말줄임표는 ...로,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반응은 ( )로 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용문은 맞춤법이 틀리고 어색해도 연구 참여자가 말한 그대로 표기하였다.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연구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지은 가명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배경정보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 참여자 배경정보

연구 참여자	나이	국적	한국 거주기간	직업	장애 자녀정보			배우자정보		동거가족
					나이	성별	장애 유형	나이	직업	
안나 (가명)	33	필리핀	10년	호텔 메이드	10	남	지체장애 2급	50	택배업	남편, 자녀1 언니, 시어머니

다음은 간략한 연구 참여자 소개이다.

안나는 33세이며 7남매 중 막내로 필리핀 누에베시아(Neuva Ecija)에서 태어났다. 누에베시아는 마닐라에서 버스로 4시간 거리의 농촌 마을이다. 원 가족은 부모님, 오빠 3명, 언니 3명으로 구성된 대가족이다. 필리핀에서는 초등학교까지 다녔고, 공부가 싫어서 고등학교<sup>9)</sup>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 23살에 국제결혼 중계 업체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소개 받았고, 한국으로 시집 온지 올해로 만 10년이 되었다. 2009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있다. 한국어 읽기와 말하기가 아주 유창하다. 남편은 택배배달 일을 하면서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고, 안나는 일을 하면서 여유가 되는 대로 친정에 돈을 송금하고 있다.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4년 전에 필리핀에 있는 셋째 언니가 지호를 돌봐주러 한국으로 와서 함께 살고 있다. 10살, 6살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첫째 자녀인 지호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지체장애 1급이었다가 현재는 지체장애 2급이다. 지호는 스스로 앉고 일어설 수 있으며

9) 필리핀의 학제는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으로 12년 과정임(2016년 변경). 안나가 학교를 다니던 때는 초등학교 6년 다음 고등학교 4년 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1년 과정과 같음.

보조기를 착용하면 약간의 걷기도 가능하다. 언어능력이나 인지능력은 또래의 친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 초등학교 입학 시 특수학교로 입학하였으나 2학년이 되면서 일반초등학교로 전학하여 현재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 4. 자료 수집 및 분석

##### 1) 자료 수집

이 연구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자료의 종류는 심층면담, 문자 메시지, 전화, 사진, 연구자의 연구일기 등이었다. 또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장애인 등록증과 같은 문서들을 수집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다룬 선행연구(한상영, 2011; 이승민, 구차순, 2013)와 장애아 부모들의 양육경험을 다룬 연구(박지숙, 2015; 하미용, 2015), 한국 다문화 아동의 삶을 다룬 연구(김영천, 2011)들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연구 참여자를 만나 사전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결혼이주 여성으로서의 삶과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 (1) 심층면담

면담은 참여자가 편한 지역과 장소를 정하여 집 혹은 조용한 커피숍에서 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연락하여 연구 참여자가 동의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총 5회를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1회당 1시간 30분 정도로 정해놓고 면담의 내용에 따라 시간을 늘리기도 하였다. 심층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녹음기 사용에 대해 양해를 구한 후 2대의 녹음기로 전부 녹음하였다. 이때, 참여자의 언어적 메시지는 물론 비언어적 메시지도 유의하여 메모하였다. 질문의 형태는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점, 특히 장애아동을 키운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진솔한 생각과 정서를 드러낼 수 있는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시작하여 점점 핵심질

문으로 접근해갔다. 주요 질문은 크게 국제결혼 이전의 삶과 결혼이후 지체장애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한 양육경험 등이었다.

첫 번째 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구조 면담이 연구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일방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구조 면담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상호 협력하여 면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용환, 2008). 연구 참여자가 지체장애아동의 양육경험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며, 되도록 연구자의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면담은 첫 번째 면담 내용을 토대로 질문지를 만들어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면담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개인 신상 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질문은 되도록 제외하고,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일반적인 자녀 양육 경험 보다는 지체장애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에게 고민이나 자녀의 병원 방문에 대해 질문할 때도 있었으며, 자신의 경험이나 자녀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연구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행동과 표정 등 녹음되지 않는 자료들은 메모를 했다가 전사과정에서 첨가하였다. 면담이 끝나면 바로 전사를 했고, 면담 상황을 점검하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개선할 사항을 생각하고 다음 질문에 대해 검토하였다. 면담 내용 확인을 위하여 2019년 5월 19일에 추가면담을 가졌다.

이 연구는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자 면담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주로 사용할 질문은 선행연구(김소형, 한경임, 2013; 한경임, 송미승, EunMi cho, 2014; 주성희, 한경임, 2017)를 참고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III-3> 심층면담을 위한 주요 질문 내용

주제	주요 질문 내용
국제결혼과 한국에서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꿈은 무엇인가?</li> <li>·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li> <li>·시댁, 남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li> <li>·친구관계나 사회활동은 어떠한가?</li> <li>·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는가?</li> <li>·한국에서의 꿈은 무엇인가?</li> </ul>
장애자녀 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출산에 대한 경험은 어떠했는가?</li> <li>·임신과 출산이 삶에 가져다준 변화는 어떠했는가?</li> <li>·임신과 출산의 의미는 무엇인가?</li> <li>·자녀가 장애임을 처음 알았을 때 어떠했는가?</li> <li>·자녀의 장애상황, 원인을 이해할 수 있었는가?</li> </ul>
지체장애 자녀 양육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가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li> <li>·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대한 생각은?</li> <li>·자녀가 입학하면서 특별했던 점은?</li> <li>·장애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li> <li>·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가?</li> <li>·앞으로의 장애아동에 대한 생각(기대)은 어떠한가?</li> <li>·비 장애자녀와 함께 양육하면서의 어려운 점 무엇인가?</li> <li>·장애자녀를 양육하는 의미는 무엇인가?</li> <li>·우리나라 학교 또는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li> </ul>

위의 표 <III-3>와 같이 크게 국제결혼의 과정과 한국에서의 생활, 장애자녀 출산, 지체장애자녀 양육경험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2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개방형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2) 연구자의 연구일기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및 전화통화를 통해 느낀 것을 기록하고 반성하기 위해 연구일기를 썼다. 염지숙(1999)과 김혜란(2012)은 연구일기를 쓴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관찰을 확장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하였다. 연구자의 연구일기는 8회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4> 연구자의 연구일기의 예

오늘은 최근의 근황부터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난 면담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질문을 하면서도 안나의 대화 흐름을 맞춰가려 했다. 안나는 오늘 기분이 좋아보였다. 면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많은 말을 꺼냈다. 특히 첫 번째 면담에서 꺼냈던 여자조카 이야기에서는 흥분하면서도 환한 얼굴이었다. 진짜 놀랐어요! 라는 말을 세 번이나 했다. 면담의 과정 중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나 역시 놀라울 뿐이다. (2019. 2. 8. 참여자와의 면담 후)

2)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김영천(2006), 김혜란(2012)의 질적 자료 분석의 과정을 기초로 1단계 전사와 메모작업, 2단계 코드추출, 3단계 주제정하기로 실시하였다.

(1) 전사와 메모작업

김영천(2006)에 의하면 전사와 메모작업은 질적 자료 분석의 첫 단계이다. 이 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컴퓨터 파일에 정리하여 기록하고 저장하는 작업으로 가장 기초적인 분석 단계이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녹음된 모든 자료는 연구자가 3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전사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 가족의 개인정보와 노출될 수 있는 인명 등은 기호로 표시하였다. 전사를 하면서 떠오른 생각을 메모하는 것은 초기에는 추상적이지만 연구의 후기에는 보다 주제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전사하면서 연구자의 느낌이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전사내용 오른쪽 옆에 기록하였다. 전사 작업이 끝난 후 발음 등의 문제로 잘못 전사된 부분이 없는지 녹음 내용을 다시 들으며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녹음된 시간은 총 500분이었다.

## (2) 코드추출

코딩하기는 수집되고 전사된 자료를 읽고 또 읽으면서 자료 속에서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으로 텍스트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의도, 의미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개념화시키는 작업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의 의미에 기초하여 귀납적으로 주제나 용어를 찾아내는 개방적 코딩 방법을 활용하였다.

내러티브는 삶의 경험 이야기이다. 그 경험의 의미는 현장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내러티브 패턴, 줄거리, 긴장감, 행복 등의 개인의 경험,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켜 찾아내야 한다. 이 때 연구자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비추어서 현장텍스트를 읽고 그것으로부터 연구텍스트를 구성하게 된다(홍현미라, 권지성, 장혜영, 이민영, 우아영(2010)).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문제와 관련된 문헌이나 이론을 떠올리면서 면담 전사내용과 현장텍스트를 읽고 또 읽었다. 분석은 맥락과 상황, 일어난 일, 인물 등을 삶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내러티브적으로 보려고(염지숙, 2001) 노력하였으며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험을 드러내 줄 수 있는 내러티브 패턴과 주제를 찾아갔다. 동시에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제결혼 전 이야기, 국제결혼과 장애자녀의 출산 이후 경험으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체 이야기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며 면담 당시 현장의 느낌을 다시 떠올려보고 놓친 생각 등을 추가로 적어가면서 현장노트와 연구일지를 재구성하기도 하였다.

## (3) 주제 정하기

질적 자료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주제란 초기코딩과 심층코딩을 거친 상위코드를 말하는 것이다. 주제를 정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삶과 양육경험을 연대기적 계열로 재구성하였다(Riessman, 1993).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는 종종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갔으며, 이에 각각의 경험의 단위를 시간적으로 주제화하여 배열하였다. 코딩되어진 자료를 비교·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범주화하였다.



## 5. 연구의 신뢰성 및 윤리적 고려

### 1) 연구의 신뢰성

현장 텍스트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선택적인 구성의 결과물이므로 해석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하여는 수많은 관점이 있다. Creswell(2013)은 현장에서 오랜 시간 보내면서 만들어진 연구물, 구체적이고 풍부한 기술,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친밀성 모두 연구의 가치나 정확성을 더한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정식 면담 전에 가정에 방문하여, 두 명의 자녀와 보드게임을 함께하는 등 시간을 같이 보내었다. 이로 인해 연구 참여자와는 물론 자녀들과도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Lincoln과 Guba(1985)의 신뢰도 확보전략을 참고하여 다음의 네 가지를 수행하였다.

첫째, 전사자료 분석 후 잠정적 연구 텍스트를 작성하여 누락되거나 왜곡된 분석결과는 없는지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받았다. 그리고 면담, 연구일지를 본문에 제시할 때에는 출처의 명확성과 신빙성을 위해 출처와 날짜를 기입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 외에도 초등학교 특수교사,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의 교사와 전화면담을 하였고, 다양한 자료원으로부터 증거를 확인하는 다원화의 노력을 기울였다.

셋째, 자료를 분석할 때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많은 문헌연구를 하고 연구자의 자세로 임하는 노력을 하였다.

넷째,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록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더라도 연구 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단, 이야기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문장에서 생략된 부분과 단어 등을 첨부하였으며 이는 괄호 표시를 하였다.

### 2) 연구자의 준비

연구 참여자의 경험진술을 수용하고 의미에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도 준

비가 필요하다. 연구자로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연구자는 석사과정 중 ‘질적 연구방법론’을 수강하며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현재 대학원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강의하는 교수로부터 내러티브의 시작과 연구절차, 분석과정을 감수 받았다. 연구 진행과정 동안 ‘다문화 상담’을 수강하였으며, 내러티브 논문 작성하기 특강에 참석하였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의 지속적인 반성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본질과 사명이 있으며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와 중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감을 깨닫게 한다. 이 연구를 준비하면서 연구자 또한 결혼이주여성,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지 스스로 반추해보았다.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좋은 내러티브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는 ‘좋은 내러티브 탐구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텍스트만으로 연구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연구의 진행과정에 의미를 부여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 또한 내러티브 탐구 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3)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접촉이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김영천, 2006). 내러티브 탐구는 한 개인의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박향경, 2012). 이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면담을 시작하기 전 잠정적인 연구 참여자를 만나 연구자에 대한 소개, 연구 목적과 동기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자의 신분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안심시켰고 연구방법의 특성 상 연구과정 내 5~6번의 면담을 계획 중이라고 말하였다.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이름, 자녀의 이름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하였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탐구에서 익명성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또한 심층면담에서 나왔던 이야

기 중 연구 참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은 내용과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소중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 준 연구 참여자에게 사례비와 자녀들 선물로 감사함을 전하였다. 무엇보다 면담 시작부터 글 쓰기 작업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차이에 의한 오류나 편견에 대한 성찰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연구 참여자와 협력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연구 참여자의 삶의 맥락

#### 1) 필리핀여성의 국제결혼

필리핀은 주요 이주 송출국이면서 아시아 지역의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주도하는 국가이다. 필리핀 해외이주위원회(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까지 필리핀인 약 43만 명이 결혼이주를 하였다. 한국은 필리핀 국제결혼이주 유입국으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국가 간 이주라는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인 안나가 태어난 필리핀의 이주역사와 사회문화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1898년부터 50년간 미국 식민지 지배를 통해 ‘전쟁신부’, ‘미군아내’로 미국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 필리핀 결혼이주의 시작이었다. 이후 1970년대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를 통한 노동력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 일본에서는 농촌의 신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도시와 협정을 맺기 시작하면서 필리핀여성의 결혼이주가 증가하였다. 1980년대 주로 중동지역 건설노동자로 남성들의 이주가 많이 진행되다가 1990년대 중동지역의 건설 붐이 쇠퇴하자 이주의 흐름이 중동에서 아시아로 변하였다. 이때부터 대만과 한국도 결혼이주 유입국에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통일교에 의한 필리핀여성과 한국남성들의 집단결혼식이 증가하였다(김정선, 2009).

이러한 필리핀의 이주배경에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고용률이라는 시장구조가 바탕에 깔려있다. 필리핀 국민은 대부분 농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반면,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 분야의 고용률이 낮아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여성인 경우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고 임금이 낮다. 필리핀은 학교 교육에서 이민에 대한 문제를 포함시키고 학생들과 잠재적 이주민들에게 이주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서 국가가 해외이주를 장려한다(강영미, 2015).

행정안전부가 2018년 11월 1일 발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필리핀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전국적으로 48,033명이 있으며, 현재 연구 참여자가 거주하는 제주지역의 결혼이민자는 4,189명이며 그 중 필리핀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420명이다.

필리핀은 전체 인구의 83%가 가톨릭 신자이다. 가톨릭의 윤리와 사상 때문에 낙태가 금지되며, 여성의 정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혼모의 자녀가 친족의 지원을 받으며, 그 자녀가 가족의 구성원으로 수용된다. 친족호칭에서 부계와 모계의 엄격한 구별이나 성별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족주의의 영향은 소규모 사업들이 가족들로 운영되는 것과 그 중심에서 어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채옥희 등, 2011). 필리핀인은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화를 잘 내지 않으며, 면전에서 반대 의견을 표출하지 않으며, 험하고 거친 말이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이은주, 2007). 약속 관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개인은 시간에 조바심을 내지 않고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자 하는 면이 있다(채옥희 등, 2011).

## 2) 가족관계

### (1) 남편과 시가족

시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올해 87세로 아들 다섯이 있다. 안나의 남편이 막내이다. 첫 번째 아주머니는 돌아가셨으며 서울에 두 분이 계시고 제주도에 한 분이 계시다.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많아서 친근감이 들지는 않는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서울에 계신 형님이 안나를 많이 챙겨줬다. 전화도 매일하면서 안부도 물어보고 “엄마처럼 생각하라”면서 다정하게 대해줬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에 양육에 도움은 거의 받지 못했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형님은 오래전부터 안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한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제사와 명절을 안나가 거의 맡아서 하고 있다. 집은 전형적인 제주도의 집구조로 안거리(안채)와 밖거리(바깥채)로 나뉘어져 있다. 시어머니가 안채에 살고 있어 이곳에서 제사와 명절을 지낸다. 처음에는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음식도 잘 먹고 적응이 되었다. 제사와 명절을 준비하는 것은 많이 힘이 들지만 11년 지내다보니 당연히 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6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로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현재 요양원에 있다.

남편은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를 통해서 만났다. 남편은 안나와 17살 차이이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계속 살아왔다. 가족의 권유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었다. 말수도 없고 표현을 안 하지만 가족을 사랑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한다. 안나가 한국생활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이혼하자고 할 때도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한다. 안나도 이 사람 “착한 사람”, “우리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2019.1.19.) 남편을 믿는 마음이 있다. 남편은 자녀 돌봄과 양육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택배 배달 일을 하여 출근은 빠르고 퇴근은 늦다. 주말에도 일을 많이 하는 데 쉬는 날은 거의 잠만 자는 경우가 많아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2) 친정

원 가족은 부모님, 오빠 3명, 언니 3명이다. 형제간 우애도 좋고 부모님의 막내인 안나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였다. 안나는 필리핀의 작은 농촌마을에서 자랐으며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여 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려웠다. 어렸을 때 TV를 보기 위해 멀리 살고 있는 이모네 집을 힘들게 찾아갔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십년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지금 오빠, 조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혈압이 좋지 않아서 약을 먹고 있다. 약값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나가 일을 해서 여유가 되는 대로 약값을 보내주고 있다. 오빠들은 오토바이 택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 안나의 바로 위 언니는 필리핀 남자와 결혼 하여 두 자녀가 있다. 돈을 벌기 위해 두바이로 가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안나를 도와주기 위해 한국으로 와서 안나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조카들의 양육도 도와주고 빵집에서 일도 하고 있다. 안나가 명절과 제사에 할일이 많기에 안나 시댁의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한다. 안나는 가끔 본국의 조카들을 위해 용돈을 보내주고, 그런 안나를 조카들은 고마워한다. 조카들이 행복하다고 할 때, 안나도 행복하다. 방학을 이용하여 필리

핀을 가게 되면 오랫동안 머무는데, 친정가족들이 지호와 지호동생을 잘 돌봐준다.

### 3) 한국의 장애아동 복지정책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체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제도는 교육지원과 소득지원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교육지원 사업은 대표적으로 교육부특수아동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다. 먼저 국립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지원에서는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종일반 운영을 지원하며, 기타 치료지원 및 방과후 학교 경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국립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이 협소한 상태이다. 두 번째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은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자녀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1~3급 장애인 자녀 중 초, 중 및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부교재비(초·중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고교생) 등이다. 장애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지원 사업은 그 대상이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기준인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저소득층 장애아동·청소년과 장애인가구 자녀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지원서비스 내용에서도 주로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아동 수당 제도를 두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이다. 장애등급에는 상관없이 1~6급 장애아동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급여수준은 중증장애인은 월 2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15만원(차 상위계층), 월 7만원(보장시설),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 10만원(차 상위계층), 월 2만원(보장시설)으로 정해져있다(보건복지

부, 2019). 연구 참여자의 아들인 지호는 현재 월 15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받고 있다.

## 2. 연구 참여자의 삶의 이야기

안나는 첫째 자녀가 태어 때부터 이상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의외로 담담하게 이때를 회상하고 있었다. 또박또박 이야기를 이어갔고 연구자는 그런 안나의 감정을 쉽게 읽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면담이 진행될수록 안나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기쁨의 표현도 적극적으로 했다.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새로운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도 했다. 24살의 나이에 장애아를 낳고 산후 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낯선 땅에서 살아내야 했던 안나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을까. 태어나서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가 수술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안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한국에 온지도 십년. 면담 때마다 안나가 했던 말은 “이렇게 살다보니 십년이 되었어요. 그냥 애들만 생각하자.” 였다.

### 1)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필리핀 출신의 연구 참여자인 안나는 한국이라는 나라, 결혼하는 남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했다. 안나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는 안나가 처음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것이다. 안나는 첫 만남에서 결혼결정을 했던 이야기를 담담히 해나갔다.

그냥, 한국 들어봤는데... 남자가 이렇게 와서 하는 거 처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랑 결혼 생각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나 처음. 나 왔으니까 점점 많아지고. 저는 처음에 한국사람 있다고 들어보는데(들었는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한번 만나봐 어떨지.” 그런데 저는요... 어렸을 때 살기가 힘들잖아요. ‘나 같은 나라에서 결혼 안하고 싶다. 무조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계속 그



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바로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동네 사람들이 “한번 만나봐.” 지호아빠가 두 번 만난 거예요(두 번째로 만난 사람). 우리는 다섯 명, 지호아빠 혼자 이렇게. (중략)

우리 다섯 명 이잖아요. 그런데 지호아빠가 들어 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나만 찾아. 지호아빠 내 스타일 아니에요. 나만 쳐다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결혼 업체 사람이 말하기를) 잘 생각해봐. 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때 우리 (친정)아빠가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아팠어요. 필리핀 병원에서는 돈 먼저 줘야 치료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치료 먼저 하고 나중에 돈 주면 되잖아요. 필리핀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때 갑자기 아빠가 생각나. 삼십분 동안 아빠 생각만.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번 가보지 뭐. (2019. 1. 25.)

안나가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생각과 함께 아픈 아버지의 치료비를 위해서였다. 결혼으로 자신과 원가족의 삶이 달라지기를 기대했다.

필리핀에서는 살기가 힘들잖아요. 키우면서 세 번 밥 먹는 데 돈 없으면 한두 번밖에 못 먹고. 근데 여기서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좋아요. (2019. 1. 19.)

[그럼 처음 만나서 결혼은 언제 했나요?]

그날 생각해 보고 다음날 결혼. 그런데 나는 결정 다했는데 밤새 고민. 그냥 거절할까...어떻게 할까... 모르는 사람 갑자기 결혼하면, 사랑도 없는 건데. 일주일, 한 달도 만난 것도 아니고 하루에 바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이 그냥 모르겠다. (2019. 1. 25.)

첫 만남에서 결혼을 결정하고 다음날 결혼식을 앞두고는 밤새 고민이 되었다. 아직 동네에서 국제결혼을 해서 이주한 경우는 아무도 없어서 물어볼 곳도 없었다. 한국이 어떤 곳인지,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사랑 없는 결혼인데 잘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신 답을 주지 않았다. 안나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었다.

그런데 다음 날 결혼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야하잖아요. 집에서 결혼하니까. 신혼여행 마날라. 비싼 호텔가서 3일 동안 호텔 지냈어요. 지호아빠 바로 한국 돌아가야 하니까. 결혼하고 나서 호텔 있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착한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결혼했으니까 같이 자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호아빠는 침대 이쪽에, 나는 이쪽에. 그냥 잤어요. 내 손도 안 잡아요. 머리가 묶고 나서 도와달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요. 내 몸 만지는 게 무서운가 봐요. 그러다가 잠잘 때 그

냥 자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해요. 다른 남자는 그렇게 안하잖아요. 내가 천오백만원 까지 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그런데 내가 천오백만원 돈 내도 그렇게 안 해. 여기 와서도. 필리핀에서 서류 때문에 삼 개월 있다가 여기 왔는데, 그때도 지호아빠 처음에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있다가. 다른 남자랑 진짜 다르다. (2019. 1. 25.)

결혼식을 마치고 입국을 위한 서류준비를 마치고 3개월 후에야 한국으로 왔다. 말이 안통하고 음식도 적응이 안 되던 신혼 초, 결혼 결정의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친정아버지의 임종을 안나는 지키지 못했다. 안나는 그날을 “내가 죽은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였다.

제일 마음에 아픈 건. 아빠가 돌아가실 때. 새벽이었는데 나만 찾아요. 갈 시간이었나 봐요. 엄마보고 “막내 딸내미 불러줘라. 보고 싶다. 할 말 있다.” 마지막에... 난 어떻게 가나... 난 못가잖아요. 임신해서. 난 그날은 죽은 거 같았어요. 영상통화 했어요. 마지막이라도 얼굴 봐야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울먹이면서) (2019. 1. 25.)

낮선 땅에서의 결혼생활과 아버지의 죽음을 맞닥뜨린 그 때 안나는 이미 임신중이었다. “내 스타일 아니었어요(2019. 1. 25.).”라고 말했던 남편은 신혼 때 안나를 살뜰히 챙겨주었다.

여기 처음 왔을 때 아직 막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 됐을 때, 계속 보고 싶어요. 일하러 가면 계속 보고 싶어 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지호아빠가 점심때마다 집에 와서 밥 먹었나 보러오고, 저녁때면 외식도 하고. 전화 몇 번이나 와요. 이 사람이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2019. 1. 25.)

## 2) 장애자녀의 출산과 엄마로 살아가기

임신 7개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충격이 가시기 전에 안나는 배속의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병원 진료를 통해 아이의 이상을 알았지만, 확실한 병명이나 원인은 알지 못하였다. 임신 당시는 한국말에 능숙하지도 않았고, 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얘기 해주는 가족도 없었다. 그래서 안나는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임신 7~8개월 때 H산부인과 다녔잖아요. 그때 큰 병원 가보라고. 대학병원 가서. 지호가 힘들대요. 거꾸로 있고. 그래서 서울 A병원에서. 수술한 거예요. 빨리 수술안하면 나도 위험. 지호도 위험하다고 해서. 태어나서 일주일 있다가 허리 수술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중환자실 있고. 다리부터 허리까지 옛날에는 감각이 없었어요.

[그 때,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병인지 왜 수술하는지. 자세하게 기억 안나. 그냥 변 때문이라고. 조금씩 생각.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지호아빠도 내가 물어보면 잘 대답이 힘들어. (2019. 1. 19.)

안나는 한국생활과 한국어에 적응되기 전에 장애자녀의 출산이라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누가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죄책감이 들었다. 지체장애의 원인이 대부분 후천적인 것과는 달리 지호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다. 충격이 컸지만 장애를 인정 할 수밖에 없었다.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수술한 아이를 보면 눈물만 나오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때는 몇 살인가? 스물 몇 살. 서울에서 거기서 3개월 동안 산거예요. 형님네 집에서 병원 왔다갔다. 옛날에는 휴대폰도 없고... 어려워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요. 애기 낳을 때, 남편도 없고. 친정엄마도 없고. 혼자. 울어요. 아기 낳았는데... 아기는 옆에 없고 병원에. 내 집도 아니고. 아기한테 우유도 못 먹이잖아요. (2019. 1. 25.)

지호를 출산하고 일주일 만에 남편은 집으로 가버렸다. 물론 일 때문이기도 했지만 혼자 남겨진 안나는 중환자실과 형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낸 3개월을 결혼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로 얘기하고 있었다. 안나는 출산 후 3개월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남편은 경제 활동으로 양육을 도와 줄 수 없었으며,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 도움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었으나 안나가 사는 시골에서는 양육정보를 얻기도, 병원을 이용하기도 어려웠다.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린 자녀의 양육, 농촌에서의 생활, 재활치료, 며느리로서의 역할들이 안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촌이라서 병원 가려면 힘들어요. 차로 한 시간 더 걸려요. 버스타면 더 오래.  
일주일에 한 번. 재활 치료하러 다닐 때 혼자가면 많이 힘들죠. 남편 못가면 혼자 가요. (2019. 1. 25. 문자)

지호가 세 살이 되었을 때 안나는 지호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동네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알아보았다. 다행히 바로 집 근처는 아니지만 차량으로 등원이 가능한 통합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었다. 집안 살림은 물론 제사와 명절을 직접 준비해야 하고 장애자녀의 ‘돌봄’을 온전히 만나야 해야 했기에 어린이집은 너무도 고마운 곳이었다.

알아봤어요.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전화도 해보고. 이 동네 말고 저기에 H어린이집이 통합어린이집이라고 우리 지호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갔어요. 너무 고마워요. 어린이집 갈 수 있으니까. (2019. 4. 22. 문자)

장애 유아가 교육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으로는 특수학교 유치부, 유치원 내 특수학급, 통합 어린이집,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나뉠 수 있다. 안나는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통합어린이집인 H어린이집에 보냈다. 이후로 안나의 ‘돌봄’의 강도는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염지숙(2012)은 발달장애아를 둔 결혼이주여성이 어린이집 입학을 거부당했다고 하였고, 주성희(2013)도 장애자녀의 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많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다행히 지호가 다닌 H어린이집에는 특수교사와 보조교사가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출산한 안나는 둘째도 혹시 장애가 있을까하는 걱정과 장애아동을 키우는 어려움 때문에 둘째 낳기를 계획하지 않았다.

지호랑 동생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지호가 이렇게 아프니까 다시는 애기 안 가지려고 생각했어요. (동생) 지석이 낳으니까 또 행복해요. (임신 했을 때) 걱정 많이 해요. 혹시나 지호처럼 나오면 어떻게 살라나.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동생이 나와서(나왔을 때) 얼마나 울고불고 했어요. 건강하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얼마나 행복 했을까 모르겠어요. (중략)

나 생각했어요. ‘동생이 건강하면 좋겠다.’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좋은 음식만 먹어요. 동생 임신했을 때 계속 조심했어요. 지호처럼 나올까봐. (둘째 태어났을

때) 간호사들이 아직 못 만난다고. 해도 빨리 불러 달라고. 아직 먹을 시간 아니라고 해도. 나는 젓 안 나와도 계속 물리고 싶어요. 안 나와도 간호사실가서 먹이고 싶다고 말해요. 아네요. 물리고 싶다고. 간호사들 젓병으로 한다고. 아니야. 난 먹이고 싶다고. 간호사들 힘들어 했어요. 둘째 태어나서는 지호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기분도 좋아요. (2019. 1. 25.)

둘째를 임신한 내내 또다시 장애가 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출산 때 까지 있었다. 그러한 불안감은 둘째를 건강하게 낳고 나서야 행복감으로 바뀌었다. 첫째 때 제대로 누리보지 못했던 행복감이 두 배로 느껴졌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자녀는 대부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윤명숙, 이해경, 2011). 안나에게 두 자녀는 낯선 땅에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존재이다. 첫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일주일 만에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3개월 동안 혼자 돌보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겨운 일이었다. 그 후의 재활치료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안나는 아픈 지호를 데리고 한 시간이 넘는 거리의 병원을 재활치료를 위해 몇 년을 다녔다. 계획하지 않았던 둘째를 건강하게 낳았고, 첫 아이 때 엄마로서 해보지 못했던 모유수유를 맘껏 할 수 있었다. 지호가 태어났을 때 외롭고 힘들어 눈물이 났다면, 둘째가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는 행복함의 눈물이었다.

지호동생이 지금 6살인데 이젠 나보다 더 말 잘하는 것 같아요. 나 한국말 더 배워야겠어요. 지호동생 때문이에요.(환하게 웃으면서)  
힘들어도. 지호랑 동생이랑 둘이니깐 좋아요. 아이들이 없으면 어떨라나...  
(2019. 1. 19.)

박민경(1997)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장애자녀의 재활과 교육에 집중하는 동시에 장애자녀로 인해 상실된 기대감을 그 형제자매에게로 전이한다고 한다. 장애가 없는 다른 자녀에게 기대하고 위로받는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 형제자매의 고민들 중 가장 큰 고민은 장애형제를 돌보아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으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형제자매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이라고 하였다. 안나는 특별히 두 자녀에게 교육열이 높은 것은 아니었으나 지호동생이 요즘 말이 많이 늘어서 자신보다 한국말을 더 잘한다고 얘기할 때는 동생에 대한 애정과 약간의 기대감이 보였다.

### 3)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안나는 지호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수학교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다. 남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고 어린이집도 잘 다녔기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 지호는 집에서 통학버스로 한 시간 거리의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이다. 다음의 내러티브를 통해 당시 안나의 심경을 알 수 있다.

처음에 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K학교 보냈어요. 나중에 K학교에 가보니까 뭐 하러 그런 학교에 보내나... 애기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두 학교가 나왔어요(나왔대요). K학교, S학교. 그거 들으니까 얼마나 화났는지 알아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부터 옮기면 어떨까...

여기서는 K학교 다닐 때, 아침 7시 반에 나가서 저녁 5시 반에 와요. 힘들잖아요(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아들이 머리가 이렇게 멀쩡한데, 다리만 불편한데. 뭐 하러. 이 동네서 다른 학교가 안 되는지 알았어요. K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권한 거예요. 다니는 거. 일반학교 가라고.

애기 아빠가 전부터(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누구랑 애기 안하는 사람이라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움직일 건데, 그거 물어보니까 뭐 하러 그런 학교에 보냈나. 엄청 싸웠어요. (화가 난 큰 목소리로)

K학교에서도 지호선생님이 자주 얘기해요. “지호 여기 다니면 안돼요. 똑똑해서 일반학교에 가야해요. 어머니 생각은 어때요?” (2019. 1. 19.)

8살인 지호는 집에서 5분되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도, 버스로 한 시간 거리의 특수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취학연령 시기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과정에서 안나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나중에 두 학교 중에 선택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고는 남편과 크게 싸웠다. 이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시를 회상하면서도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연구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때의 경험은 안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 후로는 자녀의 학교 일을 모두 안나가 결정하고 있다.

나는 내가 다해요. 선생님 전화 받고. 가기도 하고. (같은 나라) 친구들은 아빠 (남편)한테 전화 와서 상담하는 데, 나는 내가 가서 상담해요. (남편은)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싫어해. 내가 봤을 때 힘든 얘기 있으면 얘기 안하고 싶어 해.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거 싫어해. 학교에서 보내는 거 읽어보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읽어 보는 거 싫어해. 내가 (남편에게) “이거 싸인 해” (남편) “이거 뭐?” 내가 다 읽어보고 “나쁜 거 아니니까 그냥 해” (웃음) (2019. 1. 19.)

현재 3학년인 지호는 차로 5분 거리의 일반 초등학교에 다닌다. 2학년이 되면서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전학했다. 현재는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안나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지호의 등교는 안나가 직접 한다. 1학년 때는 7시 30분에 통학차량을 타려면 아침 일찍 챙기느라 지호도 안나도 많이 힘들었다. 이제는 아침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수업이 끝나면 돌봄 교실에 있거나 방과 후 수업을 마친 후 학교 근처 이모가 일하는 빵집으로 간다. 이모 퇴근시간이 되면 안나가 시간을 맞춰 데리러 간다.

애들 때문에. 지호가 아프니까. 매일 택시타고 다니면 비싸잖아요. 갑자기 막내가 어린이집 차량 못타면. 그래서, 안되겠다. 운전이라도 배워야 되겠다. 학원도 안 다녔어요. 내가 할 만큼 해보겠다고. 2년 다 되었어요. 좋아요. 쉬는 날 때마다 가도되고. 놀러 다니고. 옛날엔 아빠가 쉬는 날만. 지금은 애들은 나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하고. 애들 때문에. 지호 때문에. (2019. 1. 19.)

지호는 일반학교로 전학을 한지 일 년이 넘었다. 보조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체육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하기가 힘들지만, 쉬는 시간 같이 놀고 일반 친구들과 동일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안나도 지호가 지금 일반학교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 3.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삶의 의미

연구결과, 연구자는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삶의 의미를 ‘수용’, ‘선택의 연속’, ‘당당하게 살아가기’ 라는 세 가지 주제로 도출할 수 있었다. 그 주제는 다음 <표 IV-1>와 같다.

<표 IV-1>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삶의 의미

주제	범주	세부내용
수용	국제결혼의 결심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 ·아픈 아버지를 생각에서 결혼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임	·임신7개월 뇌수종 진단 ·원인을 알 수 없음 ·수술과 병간호
선택의 연속	통합 어린이집	·어린이집 알아보기 ·고마운 어린이집
	둘째의 출산	·다짐 ·혹시나 모르는 불안 ·기쁨의 눈물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어린이집에서 특수학교로 ·우리아이가 왜 특수학교를? ·남편과의 다툼
당당하게 살아가기	소극적인 남편, 적극적인 나	·이제는 일반학교에서 ·한국어도 내 방식으로 ·말없는 남편 ·엄마니까 할 수 있어
	상처와 인정 속에서	·시가족으로부터의 상처 ·시가족으로부터의 인정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기	·친정가족의 지지 ·사회적 지원 기대

1) 수용

안나는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자라면서 생각하기를 ‘같은 나라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겠다.’ 라고 마음먹고 있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외국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잘 살고 싶다는 생각과 본국의 가족을



돕고 싶은 동기가 작용하고 있다(김현경, 신동주, 2008). 필리핀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온 사회현상이다.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 기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인 사회풍토로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채옥희 외, 2011). 또한 가족제도에 있어서 양변친족관계(bilateral kinship)를 유지하고 있어 남편과 아내의 원 가족이 모두 동등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이라도 친정가족을 원조하고 집안일에 관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박희, 2002).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제결혼을 ‘운명’, ‘소원성취’, ‘도전과 모험’, 등 다양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으며, 고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의 삶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작이며 판도라의 상자 열기’라고 하였다(윤구원, 2012). 또한 서광석(2010)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동기는 ‘본국의 생활보다 한국의 생활이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에’가 가장 많고, 다음이 ‘현재의 배우자를 사랑해서’,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 ‘본국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결혼 이후에도 안나는 가족에게 여유가 되는대로 송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약값을 보태고 조카들을 위해 용돈을 보내주었다. 안나는 식구들이 행복했으니까(2019. 1. 19.) 좋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김민정 외(2015)의 연구에서 친정의 의미를 ‘친정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함’, ‘한없이 아리고 고마운 친절’으로 나타낸 본질적 주제와도 같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경험을 탐구한 연구(이기영, 박인숙, 소희영, 2008)에 의하면, 부모는 아이의 장애 진단 초기에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청각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질적 연구(고은경, 정계숙, 이정희, 2011)에서 두 어머니는 장애를 수용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초기에 장애를 진단하고 적절한 처치를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의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어머니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자녀의 장애를 인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주성희(2013)의 연구에 의하면 보통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재활치료로 자녀의 장애를 인식하였다고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18)의 연구에서도 정신적 장애의 경우 ‘말이 좀 더딘 것 같다’, ‘적응이 늦고 너무 산만하다’, ‘집중을 못하고, 눈 맞춤이 안 되고’, ‘까치발을 하고 다닌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녀들의 발달이

다소 늦다고만 생각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부모들은 영유아기 때 장애발견이 어렵고,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장애를 발견했다고 하였다. 안나는 지호가 임신 7개월에 산부인과의 진료를 통해 문제가 있음을 알았기에 다른 다문화 가정과 비교하여 장애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빨랐다.

단계모델은 장애에 대한 가족의 반응모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장애아동을 출산하였거나 장애를 발견한 때부터 최종적으로 부모들이 장애를 수용하기까지 경험하는 단계를 학자에 따라 3단계에서 7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Blacher(1984)는 이 단계를 충격, 부인, 불신에서 시작하여 분노, 적대감, 비통함, 낮은 자기 존중감, 슬픔, 부끄러움, 죄책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아동의 장애를 현실로 수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임신 때 알게 된 지호의 문제는 안나에게 충격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지호의 장애를 빨리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수술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 지호는 수술을 했고 재활치료도 빨리 시작할 수 있었다. 재활치료를 서둘러 시작했기에 점차 상황이 나아졌다. 이러한 과정은 친정식구들과도 공유하였다. 이러한 안나의 경험은 장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지인을 통해 얻고, 고국의 가족들과의 전화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받는다는 윤란(2011)의 연구와 같았다. 반면, 친정식구들에게 자녀의 장애에 대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박지숙(2015)의 연구,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친정식구에게 자녀의 장애에 대해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하미용(2015)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 2) 선택의 연속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서 여러 선택의 순간에 안나는 기쁨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앞섰다. 아기를 너무 좋아하지만, 첫째가 장애자녀여서 둘째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하게 둘째를 낳았고, 두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동생이 있어서 좋아”, “두 아이가 있어서 좋아”였다.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는 장애아동의 전이(transition)에 대한 연구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이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주

로 고등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연계에 초점을 두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장애아동의 취학 전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의 전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전이는 아동과 가족, 교사 등과의 사회적인 교류가 포함된 과정으로 아동과 부모에게 있어서는 기대와 설렘, 불안과 초조의 여러 감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동안 익숙해진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체계의 교육기관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다. 전이란 가족발달주기에서 현 단계와 다음의 발전단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며, 가족들은 다음 발전단계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시기이다 (Terkelson, 1980).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적응해야 하는 환경 요인은 교사, 친구, 시설, 학습, 규칙 등이 있으며, 이 다섯 가지의 원인에서 비롯된 학교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박효정, 2002).

장애아동 가족이 경험하는 전이의 결정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다르게 언급하지만, 공통적으로 논의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입학시점이다. 보통 전이기간은 매우 짧은 편이지만 장애아동의 초등학교 배치 결정이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신의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해 확신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Hanline & Knowlton, 1988).

아동이 유치원 시기를 거치는 동안 부모들은 장애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취학통지서를 받는 그 순간부터 부모들은 장애아동의 진학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을 하게 된다. 유예를 할 것인가? 진학을 할 것인가? 일반 학교를 보낼 것인가? 특수학교를 보낼 것인가? 일반 학교를 보낸다면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 안나 역시 지호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걱정을 하긴 했지만 어린이집을 가까운 곳으로 잘 다녔기에 초등학교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안나는 집근처 5분 거리의 일반초등학교에 지호를 입학시킬 수 있었음에도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통학버스로 한 시간 거리의 특수학교로 지호를 보냈다. 입학을 앞둔 시기 유치원이나 교육청을 통한 배치과정이 있었을 테지만 안나는 제대로 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였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전이시기가 지났다고 말할 수는 없고, 아동과 그의 가족 모두 초등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성공적으로 전이가 이루어졌다고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의 많은 순간순간을 경험하는 장애아

동의 어머니들은 스스로 많은 정보를 찾기도 하지만 만나처럼 결혼이주여성인 경우 이러한 정보에 많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한다. 특히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보통의 어머니보다 더 많은 선택의 경험을 하게 된다.

지호동생이 변비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면담약속이 취소되었다. 전화가 왔는데 물어볼게 있다고 했다. 약을 먹었는데 토한다고. 열은 37.5도인데 걱정이 된다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더 속상하고 힘이 든다. 병원에서 분명 의사가 현재 상황을 얘기해줬을 텐데도 아이가 아파하니 많이 걱정스러운가 보다. 한국의 어머니야 책임은 검색으로든, 주변에 물어보든 하겠지만,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이 역시 큰 문제이겠구나. 안심을 시키고, 변비에 좋은 음식들을 문자로 보내주었다.

(2019. 2. 21. 연구 참여자와의 통화 후 연구자의 연구일기)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경우는 정보가 중요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중요하구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특수학교가 꼭 좋거나, 나쁘거나 하지는 않아요. 보살핌이 더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학교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재활센터, 복지관, 행정기관 이용 등을 이용하면서 많은 정보를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많이 다르죠. 특히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라면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기 사용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보조기를 사용하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용하지 말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고민이 되죠. 빼야 하는 건지, 빼지 말아야 하는 건지. 많이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특수아동은 언제나 결정할 것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잘 골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 1. 30. 특수교사와의 전화면담)

### 3) 당당하게 살아가기

#### (1) 소극적인 남편, 적극적인 나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안나는 본국에서 한국어를 전혀 접해본 적이 없었다. 결혼 후 한국어를 빨리 배워야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배웠다. 인근지역에서 결혼이주성을 위해 한글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었으나 자기하고는 맞지가 않아서 거의 스스로 익혔다. 지금 안나는 한글을 읽는 것은 물론 쓰는 것도 가능하다.

처음 왔을 때, 한국말 몰랐잖아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 눈물이 났어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지금은 다 알아먹지만. 이제는 뭐라고 해도...

(중략)

처음엔 원불교. 지호아빠가 보내서. 원불교는 여러 나라 베트남, 중국, 일본 막 섞여 있어서~~머리가 오락가락 해. 3개월 후에 안 갔어. 한국 드라마 보면서. 영화 자막 보면서 배워. 적어놔서 아리랑 티비 보고. 문구점에서 가나다라 써진 거 사서 보고, 집에 붙여놓고. 학교 공부보다 혼자해요. 11년 된 필리핀 친구보다 잘해. 우리 친구들도 나보고 대단하다고. 어떻게 혼자 공부 하냐고. 다른 사람은 학교 다녔는데... (2019. 1. 19.)

3개월. 형님 집에서. 병원 갈 때마다 지하철타고. (그래서) 한글 말 빨리 배운 거예요. 형님이 지하철 이렇게 타고 가라고 하면 혼자 그렇게 가고. 또 집에 오고. 3개월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2019. 1. 25.)

한국에서 살아가자니, 아픈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오가자니 한국어를 더 배우지 않을 수 없었다. 안나는 한국어를 수동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자기와 맞지 않았을 때는 과감히 방법을 바꾸었다. 이러한 점은 안나의 솔직하면서도 적극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정한 남편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남편은 말 수가 너무 없었다. 대가족인 남편 형제들과의 관계, 나이 드신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결혼 초에는 많이 힘들었다. 자녀 돌봐주기나 집안일에 남편이 도움을 주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안나는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만약에 일요일마다 나는 일하러 가잖아요. 애들 때문에 화나. 지호아빠가 밥 시간에 애들 밥도 안 먹이고. 그거 때문에. 나 일 끝나고 오면 “엄마 나 배고파요” 오자마자 일 끝나고 왔는데 애들은 배고프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이 남자 아니었어요. 나한테 다정한 남자... 10년이 있었는데...나한테도 애들한테도 걱정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전화안하면 통화 안 해요. 먼저 전화하는 일 없어요. (2019. 1. 19.)

다문화가정 내에서 남편은 아내가 가장 의지하는 존재이다.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주위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가족과 배우자의 지지가 다른 일반여성보다 더 중요하며 큰 비중을 차지한다(노연희, 2011). 다음의 내러티브를 보면 안나가 소극적인 남편에게 섭섭했던 감정이 그대

로 드러난다.

애기아빠 때문에 답답했어요. “형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말해도 우리 남편이 내 편 안 들어줘요. “형수님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와서 일하고 하는 데.” 그렇게 말 안 해줘요(많이 섭섭한 듯). 10년 다 되가는 데 내편드는 거 없어요. 이렇게 살다보니 지나가다 지나가다 했어요. (중략)

혼자 키워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필리핀 친구들이 나 보고 대단하다고 해요. 운전학원도 안 다니고 면허 따고 차 운전하고 다닌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애들 때문에 운전 필요하면 해야 해요. (단호하게)

(2019. 1. 19.)

왼쪽 손 수술을 앞두고 안나는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간단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술인데 지호아빠는 병원에 같이 못가고 언니가 동행한다고 했다. 별 기대는 안한다고 하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느껴진다. 오늘은 너무 아파서 월요일 예약된 수술을 오늘이라고 하고 싶다는 말을 면담 중에도 여러 번 했다.

(2019. 2. 8. 참여자와의 면담 후 연구자의 연구일기)

다문화가정의 부부다툼의 원인으로는 성격차이, 생활비 등 경제문제, 자녀교육 및 행동문제가 있다. 특히 필리핀은 양성평등적인 나라로, 남편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 갈등을 많이 느낀다(김오남, 2006; 채옥희, 홍달아기, 2008). 안나에게 부부갈등의 주된 요인은 자녀의 돌봄 문제이다. 안나는 자신이 없는 동안 남편이 자녀들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 것에 화가 많이 나서 (2019. 1. 19.) 싸우기도 했지만 남편의 변화는 없었다. 반면, 안나는 운전을 배우고, 일을 하고, 한국어도 더 배우겠다는 당당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서 아내는 매우 주도적이며 남편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김기홍(201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 (2) 상처와 인정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 특히 여성만 제사나 명절을 준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안나도 대가족의 막내며느리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제사와 명절 준비를 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고 하였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제사 같은 거 얘기할 때. “시어머니 집에 갈 거야? 나는 나중에 가 너는?” “나는 내가 다해” 라고 말해요. 나는 가끔 친구들 부러워요. 형님 장 보러가고, 내가 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해요. 형님은 음식 한 가지 남으면 그때 와요. 남편한테 말해요. “만약에 말이야 다른 외국인이라면 아마 도망갔을걸”. 필리핀 사람들 이런 일 힘들어해요. 시내 친구들 몇 명 어머니, 형제들 때문에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난) 끝까지 가보자. (중략)

그냥 내가 다 해주는데(제사, 명절)... 부족한가봐... 제사 같은 거 원래 막내는 안하잖아요. 막내집이에요. 지호아빠가 5형제 중 막내. 1명은 제주도, 서울에 두 분. 시키는 것 내가 다하는 데 아직 부족한가봐...(체념, 씩씩한 표정)

(2019. 1. 19.)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생활 속에서 시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자 노력한다. 황해영(2018)은 이것을 ‘인정투쟁의 경험’이라고 하였다.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 경험을 탐구한 질적 연구에서 인정의 부재를 경험하고 홀로서기를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시가족의 다양한 인정형태에 따라 대처 양상이 다르다고 하였다.

안나는 명절 두 번과 시아버지 제사를 하고 있으며 이제는 제사음식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시가족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형님이 하는 심한 말과 조카의 태도에는 상처를 받기도 했다.

예전에 형님이 “너 며느리 맞아?”, 어떨 때는 형님이 “새끼야” 해. 공짜로 집에 살면서 뭐하냐고. 그럼 아주버니나 시어머니가 말려야하는 데 말리지도 않아. (중략)

조카들이 “안나” 이렇게 얘기해. “안나 부르는 게 어디 있어(격양된 목소리로). 작은 엄마라고 불러야지.” 동갑인 여자 조카가 나를 안나라고 불러...그래서 그 조카 결혼식에는 안 갔어. 지호 아빠가 뭐라 해도 안 갔어. (중략)

그렇게 말해도 엄마, 아빠는 뭐라고 안 해. (2019. 1. 19.)

모든 시가족이 안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만은 아니었다.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있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보이기도 했다.

아주버니가 우리 애들 보면서 엄마가 애들 잘 교육시켰다고 말해요.

(2019. 1. 19.)

그저께 부산에 있는 사촌형아가 지호동생한테 10만원 줬어요. 35살이에요. 나

보다 나이 많아요. 작년에는 와서 나한테 20만원 용돈 줬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데. (숙모니까)내가 (용돈을)줘야하는 데. 명절 준비하니까. 제사하니까 줬어요. 그런 조카. 하나뿐 조카 (이 조카밖에 없어) “숙모가 고생 많았어요.”해요. (중략)

원래 아픈 사람들은 직접 만든 음식 좋아요. 어머니가 간병인이(말하길) 전복죽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계속 그것만 먹었대요. 지호아빠도 형님들 음식 잘 안 먹어요. 근데 내가 해놓은 거 잘 먹어요. 내가 해놓은 거 잘 먹어 “형수님 음식 맛 없다. 우리 와이프 음식 진짜 맛있다.” (명절 때)미역국도 내가 다 끓였거든요. 명절 때 아주버니도 “지호엄마 미역국 정말 맛있다.” 생선 한 마리 사다 끓여서, 소금 조금, 참기름 조금, 가시 다 발라서. 4일 날 음식 모두하고. 5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나물들 하고. (중략)

지난번에 제주시 (여자) 조카 인사 안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나보고 “안녕하세요” 딱 내 앞에서 서있어서(서서) 인사까지 했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와가지고 내 앞에서 인사해서.

[이름 안 불렀어요?]

이번에 안나라고 안했어요. 웬일로! 갑자기! (흥분함과 놀람) (2019. 2. 8.)

인정은 한 방향에서가 아니라 쌍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가족의 인정부재는 가정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가족의 긍정적인 인정은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주여성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신으로 인해 시부모와의 갈등(홍달아기, 채옥희, 2006)을 느끼고 있다. 위 내러티브처럼 시가족의 인정과 변화는 안나에게는 놀라움이자 그로 인해 자신의 삶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도 되었다.

### (3) 타인의 시선을 넘어서기

낮선 한국생활에서, 더욱이 지체장애아를 키우는 결혼이주여성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친정 식구들이었다. 안나의 친정 언니 역시 안나의 두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온 경우였다. 방학에는 장애자녀를 친정으로 데리고 가서 가족과 함께 지냈고, 친정의 가족들은 조카를 돌봐주었다. 이러한 친정과의 긴밀한 교류는 안나에게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줬다.



지호가 아팠잖아요. 그래서 (언니를) 부른 거예요. 4년 7개월<sup>10)</sup>, 이제 3년. 1년 7개월 남았어요. 언니가 와서 편해졌어요. 이번 연장 1년 더. 또 연장하면 7개월 이렇게. 편해졌어요. 그때는 혼자 있으니까 둘을 어떻게 볼라나. 집안청소도, 언니가 왔으니까 좋아졌어요. 아플 때 언니가 애들도 봐주고 해서. 옛날에는 아주 힘들어요. (나도) 아픈데 애도 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중략)  
 지금 지호 필리핀에 갔잖아요. 거기서 안 오겠대요. 동생 지식이도 형이랑 같이 거기에 있고 싶어 했어요. (친정)가족들이 잘해주고 놀데도 많아서요.  
 (2019. 1. 19.)

내러티브 탐구결과 친정 식구들이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었으며 안나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46.9%는 모국 거주 부모형제를 초청할 의향이 있다(2015, 여성가족부). 부모형제를 초청하려는 주된 이유는 모국보다 한국의 의료, 생활환경이 더 좋아서(38.2%), 자녀 돌봄 등 가사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32.8%)이다. 베트남, 필리핀, 그 외 동남아시아, 남부 아시아 출신의 모국가족 초청의향은 70%를 상회한다. 이렇듯 원가족의 지지와 지원은 안나가 자녀양육의 짐을 덜고 재충전함으로써 당당하게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되었다.

안나는 남편의 무관심이나 말없음, 양육에 도움이 안 됨을 호소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여건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 관계에서 오는 문화적 갈등과 적응의 어려움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는 삶의 주인으로서 시가족과의 관계를 재구축한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탐색한 정순희(2006)의 연구, 일본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머니 되어가기’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의미를 수행한 이유나(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비록 몸은 한국에 있지만, 통신망을 이용해 원가족인 친정식구들과 일상을 교류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특히,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식구의 지원이 늘어나면서 신체적·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있었다. 지호는 현재 지체장애 2급으로, 한 달에 월 15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택시이용, 항공료 할인 등을 받고 있어 도움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10)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비자(F-1)로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 가족 체류가 가능하다.

다달이 용돈같이 나와요. 지금도 한 달에 15만원씩 나와요. 기저귀 값 정도.  
(2019. 1. 19.)

그리고 지호 지금 10살이잖아요. 거기 서울 A병원 한 번 다녀와야겠어요. 머리  
부터 여기(옆구리)까지 호스가 있어요. 옛날에 머리가 커요. 물이 많아서. 머리에  
서 옆구리까지 호스가 있어요. 소변처럼 나와요. 그거 소변이 아니라 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 하잖아요. 태어나서 일주일 있다가 수술할 때 그때 한  
거. 지금까지 검사하러 병원 안 가봤어요. 여기 병원 가 봐도 아무 대답 없으니  
까. (2019. 1. 25.)

실제로 지호가 한 수술은 평생 동안 평균 3번의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다. 성장에 맞추어 몸에 연결된 관을 교체 해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지금 안나는  
지호의 재수술을 알아보려고 한다. 하지만, 전문적인 의료정보는 알 수가 없고,  
지역적인 한계에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정의 지체장애인을 고려한 지원은 따로 없  
기에 막막함이 있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경험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자는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이 방법은 선천성 지체장애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 주기에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Clandinin(2013)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된 삶의 경험을 드러내는 최종 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때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였다. 즉, 내러티브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연구자 개인으로서, 실천적 함의로서, 이론적으로서 연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1) 개인적 정당성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적 정당화, 즉 이 내러티브가 각각의 우리(연구자와 참여자)에게 왜 중요한가? 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탐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는 것이다 (Clandinin, 2013). III장의 시작에서 연구자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가졌던 편견과 스스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이야기하였다. 이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고 앞으로 학교, 사회, 어딘가에서 마주하게 될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탐구하는 것은 연구자에게 중요했다. 내러티브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였다. 질적 연구, 특히나 내러티브 연구는 생소하고 어려웠다.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된 긴장감과 호기심이 공존하는 경험이었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강사라는 연구자의 정체감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 가끔은 방해가 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를 여성으로서, 엄마

로서, 인간으로서 깊이 이해하고자 했던 연구자의 인간적인 태도들은 탐구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었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조언을 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또한 주변에서 들었던 결혼이주여성과 장애에 대한 편견이 서로를 불편하게도 했고, 과장된 배려로 나타나기도 했다.

연구자에게,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의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를 진행하는 경험을 통해 아주 조금씩 내러티브 탐구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체험의 과정이었다. 내러티브 탐구 안에서 연구 참여자를 존중하고자 했고,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를 충실히 따라가면서 들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내러티브는 단순히 이야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김대현, 2006)이다.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연구가 진행되는 사이 연구 참여자는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크게 웃기도 했다. 면담의 마지막에는 여운을 남기며 지내온 10년의 삶의 과정을 소중히 돌아보는 듯 했다. 연구자 또한 장애인을, 결혼이주여성을, 연구자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 2) 실제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이란 이 연구가 실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다문화상담 또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자녀를 돌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도 자녀양육의 무게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였다. 함께 양육을 돌보고 있는 언니가 본국으로 돌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 후의 어려움에 대해 걱정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자녀를 돌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장애자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한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2016)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의 정서 및 사회생활 부분에서 다문화가정 내 장애아동들은 우울감을 느낀 적이 많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해 정기적인 심리상담,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내 부모들이 임신, 출산, 혹은 장애와 관련해서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전문성을 갖춘 상담과 통역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인 경우도 장애자녀의 병명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장애발견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부모들이 통역을 원할 경우 통역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벤토(Vento)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벤토들은 환자에게 안내되는 서류를 번역하고 수납에서 진료까지 동행하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은 진료가 끝난 후에도 정서적 지지를 통해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게 하여,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물론 남편과 비장애자녀, 조부모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정보제공의 교재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 참여자의 가족인 경우라면 전환기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지체장애를 발달주기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가족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사회적 정당성

내러티브 탐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사회적 정당성이란 이 연구가 이론적 이해를 확장하거나 사회적으로 좀 더 정의로운 상황을 만드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이론적 정당화이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응과 자녀양육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관해서는 최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윤란(2011)은 지적장애, 언어장애, 발달지체자녀를 둔 세 명의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하였으며, 염지숙(2012)은 발달장애아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연구하였다. 박지숙(2015)은 청각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하미용(2015)은 뇌 병변과 지적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을, 조향숙(2017)은 지적장애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동안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처럼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은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경험과 그 의미를 알아보려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장애자녀의 연령은 미취학 아동인 경우가 많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의 전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볼 수가 없었다. 이 연구는 선천성 지체장애아동의 초등학교 입학경험을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타 연구의 확대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사회적 정당화이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는 샘플조사로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등록 장애인 여부정도만 파악 할 수 있다. 외국인 주민이 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장애통계가 필요하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 조사<sup>11)</sup>에서도 장애코드를 넣어 다문화학생 중 장애청소년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다문화가정의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인 다문화가정보다 다방면의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자녀를 결혼이주여성의 범주에 두어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체장애는 진단과 재활치료, 전환계획, 부모교육 등 ‘장애’에 대한 전문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단위의 일관된 서비스 대상에서 ‘지체장애’를 지닌 개별의 대상으로의 인식전환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장애인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을 둔 다문화가족은 다중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보고서(2016)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다문화아동이 비장애 다문화아동보다 2배 이상 차별경험이 있었다고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중단적으로 추적하고 비(非)다문화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2011년부터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2016년까지 총 6개년에 걸친 중단조사를 실시하였음. 이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자녀의 배경특성, 학교생활영역, 심리사회적응영역, 신체발달영역, 부모자녀 관계영역, 정책지원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이루어졌고, 매년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정책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음.

에서 2015년에 조사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안상수 외, 2015)를 보면, 일 반국민 4,000명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는 53.95점으로 2011년도의 51.17점과 비교하 여 2.78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수용성지수의 구성요소에서 이 주민에 대한 ‘거부·회피 정서’, ‘세계 시민 행동의지’ 및 ‘고정 관념 및 차별’요소 에서의 수용성은 비교적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교육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일방적 동화 기대’나 ‘출신국 에 따른 이중적 평가’ 요소에서 다문화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수용성이 높게 나 타난다고 한다.

## 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선천성 지체장애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심층적으 로 분석하여 그 경험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연구자는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사 용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는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이었으며, 주된 자료 수집방법은 심층면담, 문자, 전화, 연구일기 등이었다. 자료 분석은 현장 텍스트 를 반복하여 읽고 들으며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내러티브적으로 코딩하였고 주제를 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참여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연구 참여자의 삶을 기술하였으며, 이 러한 경험이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도출된 경험의 의미는 ‘수용’, ‘선택의 연속’, ‘당당하게 살아가기’이 다.

첫째, 선천성 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한 삶의 의미는 ‘수용’이 다. 연구 참여자는 보편화된 국제결혼의 맥락에서 가족을 돕기 위해, 아픈 아버 지의 치료를 위해서 두렵지만 담담히 결혼을 받아들였다. 또한, 한국생활에 적응

도 되기 전에 장애자녀의 출산이라는 엄청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다문화 가정의 장애자녀 부모들이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자녀의 장애를 인식(주성희, 2013) 한 것과 달리, 이 연구의 참여자는 출산하기 전부터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자녀의 장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빠른 수술을 했기에 적절한 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었다.

둘째, ‘선택의 연속’이다.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여러 선택의 순간이 참여자에게는 기쁨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앞서게 된다. 특히 첫째가 장애자녀여서 둘째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하게 둘째를 낳았고, 두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동생이 있어서 좋아”, “두 아이가 있어서 좋아”였다. 장애아동 부모는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환경이나 스케줄에 적응해야 하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서비스의 지원 정보를 찾아야 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겪게 된다. 연구 참여자 역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초등학교로의 전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이지원이 필요하다(정선진, 박승희, 2009). 또한 초등학교로의 전이 시기에 장애아동 부모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이시기의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한, 특히 다문화가정의 장애아동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이나 집단 상담과 같은 개입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는 자녀를 학교에 진학시키면서 기존의 대인관계와 다른 새로운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서는 남편, 친정가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 결혼이주여성의 지체장애자녀 양육경험을 사적영역에서 어머니 개인의 돌봄만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이해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당당하게 살아가기’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초기연구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둔 온정주의 관점으로(장미혜, 김혜영, 정승화, 김효정, 2008), 결혼 이주여성을 정책적으로는 ‘잠재적인 효율적 인적자원으로’, 여성단체에서는 ‘가부장제의 희생자’로, 정치경제학적으로는 ‘지구화로 인하여 팔려온 성 상품’으로 재현되고 있다(김현미, 2006). 또한,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어머니가 장애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언어적, 심리적, 교육 환경적, 경제적 어려움이



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선행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의료정보를 정확히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도 결혼초기 언어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다.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자식을 위한 마음이 더 컸다. 지금은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쓰기에도 능숙하다. 연구 참여자의 이러한 언어적인 자신감은 가족 안에서의 인정으로, 자녀양육에서의 자신감으로, 무엇보다 스스로 잘 하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평범한 농촌에 생활하고 있으며, 크게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어 경제적인 면에 불만은 없다. 연구 참여자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는 적금도 하고, 여유가 되는대로 친정을 돕고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는 장애아동의 양육을 전적으로 한다는 어려움을 겪지만,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지원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무엇보다 연구 참여자는 지호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갖게 되었다. 지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일주일 만에 수술을 했다. 그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삶이었다. 또래들이 걷고 뛰어다닐 때 지호는 스스로 앞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이 후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 1급이었던 지호는 현재 장애 2급으로 등급이 바뀌었다. 현재는 보조기를 사용하고 목발을 사용하면 스스로 이동도 가능하다. 물론 앞으로 수술을 또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다.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다. 둘째를 건강하게 낳았을 때 느꼈던 감사의 마음은 평범한 엄마보다 더 큰 감사함이었다. 과거에 연구 참여자는 지호가 장애아이기에, 연구 참여자가 결혼이주여성이기에 불편한 시선을 많이 경험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는 이제 “내 일인데! 내 일은 내가 결정(2019. 2. 8.)”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연구의 결과는 연구 참여자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애아를 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과 상담의 기초를 제공  
하는 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선경, 김현진(2011).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인종 및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1), 259-282.
- 강영미(2015).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기 복원' 생애사: 로젠탈의 내러티브 분석 접근.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115-136.
- 강희구(2010).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어려움이 다문화교육에 주는 함의.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고은경, 정계숙, 이정희(2011). 고등학생 청각장애 자녀를 둔 두 어머니의 삶 이야기. **생애학회지**, 1(2), 49-64.
- 교육부(2018). 2018교육기본통계. [www.mest.go.kr](http://www.mest.go.kr).
- 구은정(2010).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대구 YMCA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산업·행정대학원.
- 김기홍(2012). 한·일 다문화 가정 장애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일본인 어머니들의 인식 및 지원요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4(3), 79-111.
- 김나예(2012).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대경험 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동의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대현(2006). 내러티브 탐구의 이론적 기반 탐색. **교육과정연구**, 24(2), 111-134.
- 김동엽(2010).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0(2), 31-72.
- 김두섭(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 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김미애(201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호연구**, 3(1), 59-96.
- 김민경, 김정은(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및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19-135.
- 김민정, 유명기, 이혜경, 정기선(2006).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

- 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93.
- 김민정, 김윤정, 정진아(2015). 다문화여성의 한국 가족생활 적응 경험. **예술인문 사회 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5(3), 155-163.
- 김병극(2012). 내러티브 탐구의 존재론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입장과 탐구과정에 대한 이해. **한국교육인류학회**, 15(3), 1-28.
- 김병하, 강창욱(1992).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 분석과 해석. **특수교육연구**, 19, 21-35.
- 김상호(2003). 청각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김소형, 한경임(2013). 진행성근위축아동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1), 187-213.
- 김수연(2011).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실태분석과 정부지원정책 방안: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김수정(2011). 지적장애청소년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영천(2006).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문음사.
- 김영천(2011). **가장 검은 눈동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오남(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윤경(2016).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김정선(2009).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귀속(belonging)의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종민(2012). 지적장애아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현경, 신동주(2008).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결혼생활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4), 519-535.
- 김현미(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김혜란(2012).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간 관계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남기민, 하미용(2012).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일 경험: 날고 싶은 거위의 꿈. **한국가족복지학**, 37, 41-75.
- 남윤주(2009).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 개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9), 27-36.
- 노연희(201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아 존중감, 가족지지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 류경희, 한경임, 이형숙(2011). 장애유형별 장애아동과 어머니 특성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3(2), 437-461.
- 류순희(2010). 다문화가정 여성의 삶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 박민경(1997). 장애형제를 둔 정상형제자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박세원(2007). 교사의 교육활동에서 내러티브 탐구 과정이 가지는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0(1), 37-62.
- 박신규(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주경로와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 구미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사회과학연구**, 18(1), 180-213.
- 박영일(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식생활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전통문화예술대학원.
- 박은민, 김성수, 박순희(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경험: 농촌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4), 147-167.
- 박은신(2004). 뇌성마비아동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 박지숙(2015). 청각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박지숙, 이윤정(2015). 청각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1), 245-265.

- 박지연, 유은연(2004). 장애아들 둔 저소득층 가정의 가족지원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9(2), 139-169.
- 박향경(2012). 정신장애인의 어머니가 경험한 가족생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박효정(2002).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에 대한 담임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희(2002). 필리핀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문제. **아시아연구**, 5(1), 123-158.
- 배지희, 봉진영(2012). 다문화가정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탐구. **유아교육연구**, 32(3), 383-405.
- 법무부(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 보건복지부(2018). 2017장애인 실태조사. [www.mohw.go.kr](http://www.mohw.go.kr).
- 봉귀영, 이소현(2013).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 중심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내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의 모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7(4), 113-138.
- 서광석(2010).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서옥희(2010). 다문화가정 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 서원주(2010). 개인의미도법: 박물관교육을 위한 질적 연구·조사방법. **박물관교육연구**, 4, 63-82.
- 송복희(2012). 아시아지역 가정생활문화를 통해서 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전략.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송선화, 안효자(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경험. **정신간호학회지**, 20(2), 167-179.
- 신수진(2011). 특수교사의 다문화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경험과 그 의미.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안상수, 김이선, 마경희, 문희영, 이명진(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 양시내, 김우영(2013).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경험 이야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8(1), 71-94.
-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 염지숙(1999). 유아들의 경험을 통해 본 유치원에서 1학년으로의 전이. **한국영유아보육학**, 17(3), 405-427.
- 염지숙(2001).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그 방법과 적용. **질적연구학회**, 12, 37-45.
- 염지숙(2003).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염지숙(2012). 발달장애아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삶: 희망과 가능성의 이야기. **유아교육연구**, 32(4), 403-425.
- 염지숙(2015). 내러티브 탐구자로서 관계적 윤리의 삶을 살아가기.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3), 57-65.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옥선, 김성봉(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1), 259-278.
- 윤구원(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 윤란(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장애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명숙, 이해경(2011).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통한 적응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32, 103-135.
- 윤현주(2001). 플라주에 의한 미술치료가 정인지체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이기영, 박인숙, 소희영(2008).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 **재활간호학회지**, 11(1), 32-40.
- 이명자(2010). 다문화가정 부부갈등 요인과 대책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 이명희, 김안나(2012). 중증·중복 뇌병변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어려움과 요구. **특수교육**, 11(2), 117-143.
- 이선형(2013). 한국 결혼이주여성의 모성과 정체성: 구술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수진(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 정도와 부부관계만족도가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승민, 구차순 (2013). 결혼이주여성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 경험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2), 59-87.
- 이유나(2015).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 되어가기’에 관한 질적 연구: 일본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20(1), 65-85.
- 이은경, 석동일(2010). 다문화가정 청각장애아동의 조음음운 특성에 대한 사례 연구. **언어치료연구**, 19(1), 61-71.
-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필리핀 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29-60.
- 이인숙(2011).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의 교육 실태와 부모의 어려움.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재분, 강순원, 김혜원(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한동(2008).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스트레스와 우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형숙, 류경희, 한경임(2007). 장애아동과 어머니 특성에 따른 장애 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특수아동교육연구**, 9(4), 271-294.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임선모(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장갑수(20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임신·출산과 자녀양육. **다문화콘텐츠연구**, 14, 341-365.
- 장미혜, 김혜영, 정승화, 김효정(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Ⅱ):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사회적 실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진숙(2010).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와 인권. **교정복지연구**, 20, 73-93.
- 전명자(2011).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적응유연성 예측요인 탐색.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전홍주, 배소영, 박금주(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  
의 실제와 의미: 필리핀과 일본 어머니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  
화**, 20(3), 161-186.
- 전혜영, 이미숙(2014). 다문화가정 장애아동 관련 문헌분석. **지체·중복·건강장  
애연구**, 57(4), 83-107.
- 정금희, 고효정, 김계숙, 김선희, 김진향, 박혜숙, 이영숙, 한영란, 김경원(2009).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임신과 출산 건강관리 실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261-269.
- 정선진, 박승희(2009). 장애자녀의 초등학교 전이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  
교육연구**, 9(1), 135-160.
- 정세영, 김자경(2015). 자폐스펙트럼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 **특  
수아동교육연구**, 17(3), 179-202.
- 정순희(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홍성지역을 중심  
으로.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행정정보대학원.
- 조용환(2008).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파주: 교육과학사.
- 조윤경(2015). 아시아계 다문화 가정의 장애 유아 어머니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15(3), 127-155.
- 조윤오(2010). 다문화가정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연구. **피해자학  
연구**, 18(1), 159-183.
- 조향숙, 옥수선(2017). 결혼이주여성의 지적장애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사  
례연구. **지적장애연구**, 19(4), 151-181.
- 주성희, 한경임(2017). 장애아동을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삶. **특수아동교육  
연구**, 19(2), 243-268.

- 채옥희, 홍달아기(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91-902.
- 채옥희, 홍달아기, 송복희(201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배경과 출국 전 한국가정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2), 327-338.
- 필리핀해외이주위원회(2012). CFO Compendium of Statistic on INTERNATIONAL MIGRATION(2nd ed). Manila: Office of the President,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 하미용(2015). 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가족생활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한경님(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71-190.
- 한경임, 송미승, 박철수(2003). 장애 아동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정서·행동장애연구**, 19(3), 45-66.
- 한경임, 송미승, EunMi cho(2014). 미국 거주 한국인 장애학생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특수아동교육연구**, 16(2), 99-126.
-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다문화가정의 장애아동가족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상영(2011).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녀 양육경험.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홍영숙(2015).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3(1), 5-21.
-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영, 이민영, 우아영(2010).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황혜영(2018). 재한 중국동포 결혼이주여성의 생애경험 탐구. 박사학위논문, 인하 대학교.
- 행정안전부(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www.mois.go.kr](http://www.mois.go.kr).
- Blacher, J. (1984). Sequential stages of adjustment to the birth of a child with handicaps: fact or artifact? *Mental retardation*, 22, 55-68.

- Clandinin, D. J. (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강현석, 소경희, 박민정, 박세원, 박창언, 엄지숙, 이근호, 장사형, 조덕주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은 2007년 출판).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7).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소경희, 강현석, 조덕주, 박민정 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전은 2000년 출판).
- Clandinin, D. J. (2015).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엄지숙, 강현숙, 박세원, 조덕주, 조이숙 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전은 2013년 출판).
- Creswell, J. W.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3판**.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3년 출판).
- Hanline, M. & Knowlton, A. (1988). A collaborative model for providing support to parents during their child's transition from infant intervention to preschool special education public school programs. *Journal of the Division for Early Childhood*, 12(2), 115-125.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axwell, J. (2005).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Polkinghorne, D. E. (2009).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강현석, 이영효, 최인자, 김소희, 홍은숙, 강웅경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8년 출판).
- Riessman, C. K. (1993). *Narrative analysis*. Newbury Park, CA: Sage.
- Terkelson, K. G. (1980). Toward a theory of family life cycle. In E. Carter & M. McGoldric (Eds.), *The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of family therapy* (21-52). New York: Gardner Press.

<부록>

## 연구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구에 기꺼이 참여해 주실 것을 허락하신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천성지체장애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경험이 주는 의미를 이해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직접 만나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삶과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양육경험에 대해 면담할 것이며 면담 내용은 녹음 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 없이 언제나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의 연구목적으로 활용되며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김민호

연구자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석사과정 김래성

연락처

### 1.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연구 참여자와 자녀의 기본 인적사항 및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포함됩니다. 보고서 및 논문에 개인의 이름은 가명으로 기재되며, 기타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는 게시되지 않습니다.

### 2.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대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영구보존 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정보는 본래 연구 목적을 위한 분석 및 처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폐기처리 됩니다.

2018년    월    일

연구 참여자 : (인)

## ABSTRACT

A Narrative of Filipino a Marriage Immigrant Woman  
with a Congenital Disabilities Child

Lae Sung Kim

Major in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Min Ho Ki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pproach the life of a married woman with congenital retarded child in depth to understand what context she married, what she experienced while giving birth to and raising a child, and what it means to that experience.

To conduct the study, the researcher used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Narrative Research. Given that the method is a study of the experiences of individuals living, it is an appropriate method for in-depth research into the life of married women who raise child with birth defects.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marriage women from the Philippines who have been raising child with birth defects since 2010 after their international marriage in 2009. Data collection was for about six months from October 2018 to March 2019, and the main data collection methods were in-depth interviews, text messages, phone calls and research journals. Data analysis was narrarily coded and theme-oriented by repeatedly reading and listening to field tests.

The results of the study described the childbearing and child rearing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in the context of the participants' lives and looked at what this experience meant to the participants.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derived from the study participants' stories is 'acceptance', 'continuation of choice' and 'living with dignity'.

First, the meaning of life experienced by marriage women with birth retardation child is 'acceptance'. To help families in the context of universal international marriages, the study participants accepted the marriage fearfully but calmly for the treatment of their sick father. In addition, while faced with the enormous reality of giving birth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before they were fully adapted to Korean culture, they realistically recognized and accepted their children's disabilities.

Second, 'continuation of choice'. The study participants were born with a disability and would not have a secon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experienced difficulties in selecting daycare centers for child with disabilities and not knowing the exact information in the admission process of elementary school.

Third, 'living with dignity'. The study participants complained of her husband's indifference, reticence and unhelpful parenting. Nevertheless, she did not accept these conditions passively, but showed more aggressive response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trying to narrow down cultural conflicts and difficulties in adapting to family relationships. she also spent his life interacting with her original family, her family members, using the network, although she is in Korea. In particular, she had a sense of physical and emotional stability as her family's support increased in the process of giving birth to and raising disabled child.

Based on these results, the life of a married woman with birth retardant child was discussed with three justification: personal justification, practical justification and social justifi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married women in similar situations to understand their lives and raise their children. Furthermore,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basis for support and counsel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with disabilities child.

※ keyword: Marriage Immigrant Woman, Disabilities Child, Narrative